

양승조號, 미국 프랑스 ‘외자대박’ 터뜨렸다 (5억 8500만 달러)

2박 5일 기내서 잠자며
대륙 간 4만km 횡단 비즈니스
‘충남세일즈’...서산·천안 등 입지
미, 2개사 3500만 달러 캐거
프, 토탈社 5억 달러 통큰 투자
프 5000만 달러 추가 기대 UP

혁웅 한화토탈 대표이사, 맹정호 서산 시장 등과 외자유치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로써 한화와 프랑스 토탈의 합작 기업인 한화토탈은 서산 대산공장 부지 내 5만 700㎡ 규모의 잔여 부지에 나프타 분해시설 및 폴리프로필렌 생산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다. 증설한 공장에서는 에틸렌과 프로필렌, 폴리프로필렌 등을 확대 생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화토탈은 앞으로 5년 동안 5억 달러를 투자한다.

지난 15일 글로벌 대기업으로부터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2박 5일간의 출장길에 오른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5억 3500만 달러 외자 유치라는 낭보를 전해 왔다. 미국으로 떠나 프랑스에서 끝난 4만 2000여km의 대장정에서, 양 지사는 두 나라에서 3개 기업과 투자 협상의 마침표를 찍고, 1개 기업과는 투자 상담을 통해 충남 유치를 추진했다. 방미 첫 날인 지난 15일(이하, 현지 시각), 양 지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서 D사 관계자, 구본영 천안시장 등과 외자유치협약(MOU)을 체결했다. MOU에 따라 D사는 천안 외투지역 내 반도체 소재 물질 생산시설 증설을 위해 66037㎡ 규모의 빈 공장을 매입하고, 5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D사는 이미 국내 법인을 설립해 천안외국인투자지역과 천안3산단 확장 부지에 입주, 지속적 추가 투자를 통해 사업을 확장 중이며 도내 공장에는 210명이 근무 중이다.

이번 외자 유치에 따라 양 지사는 2박 5일 간 미국과 프랑스 3개 글로벌 우량 기업으로부터 5억 3500만 달러의 외자 유치 협약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한편 지난 17일에는 프랑스 첨단소재 분야 선두 업체인 I사를 방문해 임원진에게 충남의 산업 인프라 등 투자 여건을 설명했다. 산업용 미네랄 생산 기업인 I사는 50여 개국 270여 개 현장을 보유한 선두업체로, 현재 아시아 투자처로 우리나라와 중국을 저울질 중이다. I사가 아시아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5000만 달러로, 양 지사는 지난달 새롭게 조성한 당진 송산2-2 외투지역 내 4만㎡의 부지에 I사의 제조공장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중점 협의했다.

양 지사는 지난 22일 열린 미국·프랑스 외자유치 순방 성과 기자회견에서 이번 외자유치 활동의 성과를 설명했다. 이번 MOU로 향후 5년간 매출은 4조 2260억 원, 생산유발 효과는 16조 7520억 원을 비롯 300억 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는 것.

양 지사는 “올해 우리 도의 글로벌 우량 외투기업 유치 목표는 12개사로, 이번 성과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목표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밝혔다.

이어 외자유치 활동 이외에도 ▲생·망대 시장 면담 ▲노인요양병원 및 시립 탁아소 방문 ▲도시정비사업 현장 시찰 ▲고용창출형 사회적기업 방문 ▲주프랑스한국대사 면담 등의 활동을 폈다며 “유럽의 선진 복지제도와 시설 현장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투자입지와 041-635-3381 /손유진 syj0319@korea.kr



“충남형 24시간제 전담 보육 출발” 양승조 충남도지사(사선 뒷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가 전국 최초로 24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아이키움뜰 개원식에 참석해 관계자 및 보육 수혜를 받게 될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 선편
무상교육·급식, 돌봄체계 등
도·교육청, 역점협력과제 공유

육 실현 ▲무상급식과 친환경 급식 확대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공동연수 ▲충남형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등이다.
이 중 충남형 온종일 초등 돌봄 체계는 맞벌이 가구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녁시간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센터를 연내 15개 시·군 전역에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고, 2021년부터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돌봄 체계 실행력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도와 도교육청은 이달 중 광역 및 시·군별 돌봄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 돌봄 수요 분석 및 정책 간 연계 방안을 마련하며, 5~6월 돌봄센터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확정한다.

비전 선편식 이후에는 전국 최초 24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아이키움뜰’ 개소식을 진행했다. <관련 기사 5면>

●출산보육정책과 041-635-4533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초등학생을 저녁시간대까지 돌봐주는, ‘온종일 돌봄 체계’를 연내 구축한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23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 선편식을 개최하고, 10대 역점 협력과제를 발표했다.

10대 과제는 ▲어린이집 보육료·유치원 교육비 차액 지원 ▲고교 무상교

‘장애인 맞춤형 운동처방’ 전문센터 건립

장애인체력인증센터 공모 선정
전국 네 번째, 아산서 8월부터 운영

번 공모 선정에 따라 도는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내에 전국 네 번째로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설치한다.

또 운동처방사 등 전문 인력 4명을 채용하고, 체력측정 장비 등도 비치한다. 운영은 오는 8월부터 본격 시작한다. 도는 이번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유치를 위해 충남장애인체육회, 아산시 등과 함께 시설 인프라 구축 등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도 관계자는 “지난 1월 장애인 골볼 실업팀 창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여자 태권도팀 창단에 이어 이번 장애인체력인증센터 공모 선정으로 민선7기 장애인 체육 분야 3개 공약 사업을 모두 이행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체육진흥과 041-635-3864

충남도, 동북아 이어 유럽·미국을 누비다

I 도정 돌아보기

○...거침없는 통 큰 세일즈 외교
양승조號 세일즈 외교가 거침이 없다. 미국과 프랑스의 글로벌 기업 3곳에서 5억8500만 달러(약 6648억원) 투자유치를 끌어내면서 세일즈 외교의 진가를 드러냈다.
양 지사는 18일 석유 가스 분야 세계 4위의 글로벌 기업인 프랑스 토탈과 5억 달러 외자유치협약(MOU) 체결했다. 이를 전인 15일에는 미국에서 에어

프로덕츠사와 3000만 달러의 외자유치를 약속받았다.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듀폰사와는 500만 달러 투자유치 협약에 서명했다.
부지런히 발품도 팔았다. 투자처로 한국과 중국을 저울질 중인 프랑스 파리의 I사 본사를 방문해 세일즈를 펼쳤다. 이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도록 설득과 두둑한 인센티브도 보장했다. 최대 7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열혈 비즈니스다.
양승조호는 동북아에서도 발군의 성

과를 올려놓고 있다. 작년 7월 취임한 뒤 중국 순방을 통해 1000만 달러를, 올해 일본 방문에서 2000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며 동북아 新경제 중심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투자유치는 작년 8700억, 올해 4600억 원 등 1조3300억에 달한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양지사는 귀국 후에 “젊은이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토대를 하루빨리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업유치를 통한 최고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전국 최초 24시간 어린이집 개원
충남도지사 관사가 아이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됐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이다. 전국 최초다.

‘24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아이키움뜰’은 병원 이용이나 야근, 경조사 등 부모들이 아이를 긴급하게 맡길 수 있다.
주·야간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24시간 공공교육 보육 시설. 부모의 양육 부담은 실질적으로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24시간 어린이집을 도내 곳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충남형 가족복지다.

○...3·1정신 선양 태권도 시범단 창단
‘충남도 태권도 시범단’이 21일 창단됐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창단된 태권도 시범단은 연말까지 유관순 열사와 3·1만세운동 이야기를 주제로 퍼포먼스를 펼친다. 총절과 평화의 고장을 태권도로 선양한다는 것이다. 유관순 복장을 한 시범단의 발차기는 독립정신의 결기가 드러난다. 이들은 해외 자매결연 도시, 남북 교류공연에도 참가해 태권도 중추국의 위상과 독립정신의 함성을 뽐낸다.

/이찬선 chansun21@korea.kr



충남도, 지역화폐로 '경제 선순환' 이끈다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

2023년 1000억 발행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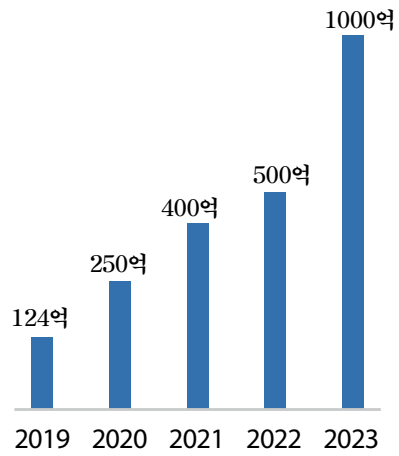
올해 발행 목표액 124억

역외유출 방지 등 효과 기대

충남도가 지역화폐 본격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오는 2023년 도내 발행액 1000억 원을 목표로 이용 활성화 작업에 착수했다.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발행하고,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코인 등의 결제 수단이다. 도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이용을 확대하기로 하고, 최근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충남 지역화폐는 도내 전역이 아닌 해당 시·군 내에서만 유통 가능하도록 '광역 지원 모형'을 채택했다. 이용 대상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업체 등이다.



연차별 발행 목표

도는 우선 올해를 기반 구축 단계로 설정하고 ▲조례 제정 ▲발행 지원 ▲시·군 공무원 및 주민 홍보 강화 등의 활동을 펴기로 했다.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김영권 도의원)는 지난 11일자로 제정·공포했다. 이 조례는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사업 및 지원, 시·군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발행액의 10%에 달

하는 운영비의 일부를 도비로 보조기로 하고, 올해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발행 목표액은 124억 원으로, 내년 250억 원, 2021년 400억 원, 2022년 500억 원, 2023년 1000억 원 등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도내에서는 지난 해 8곳이 지역화폐를 운영 중으로, 발행액은 부여 21억 원, 서천 17억 5000만 원, 계룡 15억 원, 태안·청양 10억 원, 예산 5억 5000만 원 등이다. 도내에서의 지역화폐 역시 진입 장려금·대학생 전입 축하금(청양), 청렴 마일리지·성실납세자·출산 축하(예산), 금연 격려금·위기가정 신고 포상금(태안) 등으로 활용 중이다.

도 관계자는 "2017년 기준 충남의 지역내총생산은 124조 4000억 원으로 전국 최상위 수준이나, 소득 역외유출 역시 27조 9000억 원(22.48%)으로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라며 "역외유출을 최대한 막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을 위해 지역화폐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기업과 041-635-3444



충남 태권도시범단 '멋짐 폭발' 지난 21일 충청남도 태권도시범단이 창단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시범단은 이날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창단식 공연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20여 차례 시범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체육진흥과 041-635-2434

도내 353만여 필지 개별공시지가 공개

내달 7일까지 열람·의견 제출
감평가 현장 상담 병행 운영

충남도는 지난 15일부터 내달 7일까지 도내 353만 31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별 관할 시·군·구청장이 조사해 5월 말 결정 및 공시하며,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청취는 최종 결정·공시에 앞서 감정평가사의 적정성 검증 절차를 완료한 산정지가에 대해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의 의

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함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해당 시·군 누리집이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산정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시·군 토지담당 부서에 직접 또는 우편·팩스로 의견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비교 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 지가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을 통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내달 15일까지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해당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병행 운영하기로 했다.

●토지관리과 041-635-4791

더 행복한 충남, 공공디자인으로 실현

경관 변화·범죄예방 2개 분야
8개 시·군, 40억 원 투입

충남도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 과 도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 공공 디자인 공모 사업'을 실시, 8개 시·군을 선정해 총 40억 원을 지원한다.

도는 도시 경관을 변화시키는 공공 디자인과 범죄예방 디자인 등 총 2개 분야에 걸쳐 이번 공모 사업을 시행했다.

공공디자인 분야에서는 ▲공주 '산

성찬호길 체인지업 프로젝트' ▲아산 '운양온천 너더리길 경관 개선사업' ▲논산 '디자인(DESIGN), 단절을 잇는 바느질이 되다' ▲서천 '다락말마을 경관 개선사업' ▲홍성 '내포신도시 중심상업 지역 특화거리 조성사업' ▲예산 '기차길~옆 역사와 전통의 감성 찾기 프로젝트' 등 공공 공간과 가로변 환경에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6개 사업을 선정했다.

범죄예방 디자인 분야에서는 ▲금산 '소소한 관심과 따뜻한 감성으로 꽃피우는 태봉 안심골목길' ▲부여 '함께하는 안전거리·행복한 동행' ▲홍성

'범죄예방 산책길 조성사업' ▲예산 '쾌적하고 안전한 시간의 동행길 만들기' 등 4개 사업을 선정, 도내 경찰서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선정 시·군은 주민과 전문가 등을 포함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계획 단계와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해당 시·군의 사업 구상부터 준공까지 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한다.

●건축도시과 041-635-4668

노동자 권익 보호하고 일자리 질 높인다

도 노동권익센터, 6월 개소

6월 3일까지 수탁기관 공모

법률·노무상담, 권리 구제 지원

충남도는 지난 23일 노동자 권익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노동 정책을 개발·추진할 전문기관인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내포신도시 내에 설치할 도 노동권익센터는 도내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노동 정책·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노동법 관련 법률 및 노무 상담을 진행하고 이동 상담실을 운영하며, 노동 인식 개선 등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도는 도 노동권익센터를 민

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키로 하로, 4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수탁기관을 공모한다. 신청 대상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자격과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도내 주 사무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수탁 희망 기관은 도 누리집(<http://www.chungnam.net>) 공고·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도 일자리노동청년과 노동정책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경제통상실 041-635-2243

I 이명재의 충청말 이야기 ⑩

배고픈 시절엔 보리뜸물
명절때는 쌀뜸물

지금 이 땅엔 세 세대가 산다. 돌아보면 참 배고팠던 시절이 있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과 가난이 가득하던 시절을 보낸 세대, 주린 배가 등 짝에 달라붙던 시절을 살아온 이들은 노년의 어른들이다. 보릿고개가 아득하던 1960년대 이전을 살아온 이들에게 쌀뜸물이나 보리뜸물은 낯설지 않다.

쌀뜸물, 보리뜸물

1960년대와 1970년대는 나라 살림이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였다. 그 시절을 보낸 이들은 어린 날의 보리밥과 청년 시절의 쌀밥을 공유하는 장년들이다. 등잔불이 전깃불로 바뀌고, 시대의 빠른 변화를 몸소 체험한 이들이다.

반대로 지금 자라나는 젊은이들은 딱히 배고픔을 모르는 이들이다. 그래서 요즘의 젊은이들에게 지난날의 배고픔을 논하는 것은 어른들의 낡은 두리에 그칠 수도 있다.

1970년대 이전의 세상은 온통 보리밭이었다. 너른 들에는 벼가 자라기도 했지만 쌀밥을 먹는 사람은 흔치 않았다.

방앗간도 보리방아를 찧었지 쌀방아를 찧는 일이 드물었다. 쌀밥 얘기는 그저 배부른 소리였다. 보리밥이라도 배불리 먹으면 아름다운 세상이었다. 그래서 그때의 뜸물은 보리뜸물이었다.

보리쌀은 딱딱하고 거칠었다. 씻고 남은 보리뜸물도 곱지 않았다. 사람

이 먹을 것이 못 되는 거무죽죽한 보리뜸물은 구정물통에 쌀였다가 돼지의 먹이가 되거나 쇠죽을 찌는 데 쓰였다.

반대로 쌀뜸물은 곱고 부드러웠다. 하얀 쌀에서는 뽕얀 뜸물이 나왔다. 명절이나 씻어낼 수 있던 쌀, 쌀뜸물은 버려지지 않았다. 무를 찧어 넣어 끓이면 구수한 무국이 되고 된장국을 끓이면 그렇게 맛났다.

'뜸물'은 '뜨다'에 '물'이 붙은 말이다. 보리쌀이나 쌀을 씻을 때 하얗게 떠오르는 물을 뜻한다. 표준말은 '뜨물'이다.

충청도는 서울과 가깝다 보니 더러

'뜨물'이라 쓰는 사람이 있지만 흔치는 않다. 그저 '뜸물'이고 '뜨물'이다. 경상도나 전라도도 '뜨물'이고 '뜸물'이다. 서울 사람들이 '뜨물'이라 하니 이것이 표준어가 되었지만, 사실 '뜨물'이나 '뜸물'이나 그게 그거다. 차이가 크지 않으니 어떻게 써도 이상하지 않다. 지금도 삼남 사람들은 지금도 '뜸물'이라 쓴다.



이명재
예산군 내포제
시조 보존회 회장



지난달 29일 서천에서 열린 3·1만세운동 릴레이 재현행사에 참여한 도민들의 모습

‘1919명 청년추진단’ 3·1 만세운동 대장정 마무리

개별 3·1절 기념식 확대·연계
7주간의 릴레이 합성 마칩표
시대상황극 재연·만세꾼 활동
독립 열망 생생하게 되살려

장으로 만들기 위해 3·1만세운동 릴레이 재현행사를 추진했다. 릴레이 일정은 지난 2월 28일 천안 아우내 봉화제를 시작으로 지난달 6일 부여 → 14일 공주 → 29일 서천 → 이달 3일 예산 → 4일 당진·아산 → 5일 청양 → 17일 보령 등 3·1운동 발상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구성했다. 각 시군은 의식행사와 더불어 ▲독립선언서 낭독 ▲거리행진 ▲시대상황극 연극 공연을 같은 순서로 조직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열사의 뜻을 기념하고 한 목소리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해 선열들의 의지를

전파했다. 특히 주요 시가지 행진 중 연출된 시대상황극은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재연, 선열들의 독립 열망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시·군 행사주체들이 직접 33명의 ‘만세꾼’으로 변신, 선두를 주도한 것도 인상적이었다. ‘만세꾼’은 1919년 당시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만세운동 계획을 사전에 전파하고, 3·1운동 주도·확산한 주역이다. 만세꾼을 포함해 시군별 행사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운영한 이른바 ‘청년추진단’은 총 1919명에 달했다. ●운영지원과 041-635-3503

충남도가 지난 17일 보령시를 끝으로 두 달간의 ‘3·1만세운동 릴레이 재현행사’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충남 전역을 애국독립정신 계승의 문화축제의

4~10월 오존경보제 시행

주의보·경보·중대경보 등 단계별 알림으로 피해 대비
휴대폰 문자 알림 신청도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최진하)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6개월 간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존경보제는 오존 농도가 환경 기준을 초과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에게 신속히 알려 대비토록 하는 것으로, 대기 중 오존의 농도에 따라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를 발령한다. 오존은 자극성 및 산화력이 강한

기체로, 두통과 기침, 눈이 따거거나 현상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폐기능 저하나 피부암 유발 등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 어린이 등은 실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경보 시에는 모든 도민들이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피해야 한다. 오존 중대경보 발령으로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행 제한,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의 조치를 내린다. 오존 경보 발령 정보를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로 받길 원하는 도민은 충남넷 누리집(www.chungnam.go.kr)이나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www.chungnam.net/healthenvMain.do)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환경연구원 041-635-6938

금강보 처리...민·관 협의 본격 진행

농업용수 부족·가뭄 등 도 차원 대응방안 논의

충남도가 금강보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민과 전문가, 환경단체, 도의회, 시군 관계자 등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지난 17일 도청에서 20여명으로 구성된 ‘금강보 처리방안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민관협의체 위원장에는 충남도립대

허재영 총장이, 부위원장에는 오인환 도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민관협의체는 향후 농업용수 부족, 공주보 부분해체 시 공도교 안전성, 가뭄 대비 금강수원 활용 도수로 운영 가능 여부, 백제문화제 등 지역축제 시 적정 수위 유지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이 도민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에 건의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물관리정책과 041-635-4171

“농가소득 5000만원, 판로에 달렸다”

농산물 유통환경·대응방안 논의
“지역식품순환체계 구축이 해답”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

충남도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와 효율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3농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18일 기조발제를 맡은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산

물 유통정책 방향 및 주체별 역할’에서 “팔리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유통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종화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충남오감 재도약’을, 김기현 지역농업네트워크 본부장은 ‘도 먹

거리전략 추진방향’을, 이인범 도농식품유통과장은 농산물 유통정책 방향을 각각 제시했다. 나소열 도 문화체육부지사는 “도는 지난 3월 광역먹거리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공공급식지원 조례를 만드는 등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역식품순환체계를 만드는 것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농의 소득안정과 판로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먹거리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유통과 041-635-4169

이순신 장군과 아산 현충사

새로 배우는 충남學⑨

4월 28일은 충무공 이순신의 탄신일이다. 충무공 탄신일을 기념한 아산의 문화제를 기점으로, 전국에서 충무공 관련 축제가 5월까지 이어진다. 이순신 장군은 1545년 4월 28일 한성부 건천동(서울 인현동)에서 부친 덕연군 이정익의 사형제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28세 무과시험장에서 활쏘기·칼 쓰기·창 쓰기 시험을 치르고, 마지막 시험인 말타기를 하다 낙마해 낙방을 하고, 32세가 되어 무과에 급제 하였다. 그해 32세에 함경도에 초급장교인 권관(權管)으로 임명되었고, 36세에 전라도 발포만호(鉢浦萬戶)를 시작으로 45세까지 전국에서 관직을 지냈다. 45세에 전라도 정읍현감에 태인관을 겸함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아는 이순신 장군의 면모가 부각됐다. 47세에 유성룡의 천거로 마침내 전라좌수사가 되어 여수에 부임한 장군은 장차 왜적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여 전함을 건조하였다. 군비를 확충하던 중 48세에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발발, 5월 7일 제1차 옥포해전, 5월 29일 제2차 당포해전, 7월 8일 제3차 한산도에서 학익진으로 대승첩을 거둬 서해로 가려는 왜적들을 완전 소탕했다. 또 9월 1일 제4차 부산포해전에

서 승리를 거두고, 49세에 삼도수군통제사로 승임, 50세에는 전염병으로 10여 일이나 고통을 당했고 52세에 적군의 음모와 원군의 시기로 서울로 압송 당했다. 53세에 정탁(鄭瑑)의 상소문이 주효하여 석방된 후 백의종군 후 다시 통제사로 복직해, 9월 16일 울돌목에서 왜적 30척을 격파하는 명량해전 대승첩을 기록했다. 54세인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 철군하는 왜함 500여 척을 추격해 남해 노랑에서 큰 격전을 벌이다 날이 썰 무렵에 탄환을 맞아 전순(戰歿)했다. 현충사는 숙종 때 아산 지역의 유생들의 건의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위업을 선양하기 위해 장군이 어린 시절을 보내고 훈인을 한 아산에 현충사가 건립됐다. 시련에 굴하지 않았던 이순신 장군은 적군과 조우할 때면 백성들과 수하 장졸을 먼저 생각해 전투를 치렀으며 시기와 장소를 적절히 이용해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 했다. 일신의 인위보다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생각한 이순신장군이 고금을 막론하고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은 자신을 낮추고 오로지 백성과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애국 충절의 표상이기 때문이다. /이민호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충남학 강사

만화로 보는 세계 인권선언 <28>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아홉 번 찌고 말린 '흑삼'으로 세계시장 재패 '예약'

이제는 농촌융복합산업이다
금산흑삼(주)

금흑브랜드로 다양한 제품 출시

GAP·해썹 등 안전성·품질 확보

금산흑삼(주)(대표 고태훈)은 대한민국 인삼생산의 종주지, 금산을 대표하는 농촌융복합산업체다. 대표상품은 대한민국 건강식품의 대명사인 인삼, 이를 아홉 번 찌고 말린 흑삼(黑蔘)이다.

원형 흑삼, 흑삼 분말, 흑삼농축액, 흑삼액, 흑삼청, 흑삼절편을 비롯해 흑삼 커피, 흑삼 화장품, 흑삼 비누 등 흑삼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상품이 '금흑(GeumHeuk)'이라는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다.

금산에서 흑삼을 제조하는 업체는 여럿이다. 이 중 금산흑삼(주)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지원으로 국내 시장을 넘어 최근에는 해외시장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등 가파른 성장세가 돋보이는 업체다.

금산흑삼은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흑삼산업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 차원에서 지난 2012년 설립됐다. 농림부 지원 향토산업육성사업 일환으로



금산흑삼(주) 고태훈 대표가 다양한 금흑 브랜드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금산 관내 5개의 식품가공 기업과 협업을 통해 '금산흑삼주식회사'를 설립, 명품 흑삼전문 브랜드인 '금흑'을 탄생시켰다.

금산흑삼은 대기업이 독점하다시피 하는 흑삼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품질 경쟁력 확보에 주력했다. GAP인증,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농공상용복합형 중소기업 지정, FSSC 22000인증, 해썹 인증, GMP인증, 클린사업장 인증 등 금산흑삼이 지난 7

년간 획득한 각종 인증은 소비자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흑삼의 뛰어난 효능과 식품 안전성, 품질 확보에 주력한 결과 지난 2015년에는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과 한국소비자만족지수 고객만족브랜드 대상을 받았고 향토산업육성사업 우수사업으로도 선정됐다.

이후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농산물 명품화지원을 받으며 유통망을 넓혔고 현재는 갤러리아백화점, 롯데

백화점, 하나로마트, 고속도로휴게소, 63면세점을 비롯해 각종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전국의 소비자들과 만나고 있다.

관로 확보에 힘입어 매출도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14년 2억 원이었던 연매출이 지난해에는 43억 원으로 했다. 고용인원도 점차 늘어 현재 22명의 직원이 일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다. 설립 5년째인 신생기업으로서는 비교적 성과다.

고태훈 대표는 금산흑삼이 단기간에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로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의 각종 금융·정책 지원사업과 'GAP인증 인삼 공동 구매 제도'를 꼽았다.

특히 GAP인증 인삼 공동 구매를 통해 금산에서 친환경적으로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고 대표는 강조했다.

"2014년부터 금산군의 지원을 금산 지역 내 GAP인증을 받은 인삼 농가들의 인삼을 구매해 오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일반 시장보다 더 높은 가격에 인삼을 내놓을 수 있어 좋고 저희는 안전성이 보장된 품질 좋은 인삼을 확보할 수 있어 일석이조인 셈이죠. 가공업체와 생산자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모델로, 좀 더 많은 농

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모를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금산흑삼(주)은 최근 해외 수출 판로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베트남, 프랑스, 미국, 캐나다, 홍콩, 대만, 일본 등 기존 거래처 외에도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 중앙아시아 등지로도 수출 영토를 확대하고 있다.

코셔, 할랄 인증 등 현지 사정에 맞는 각종 인증 획득에 주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해에만 약 40만 불의 수출 성과를 거뒀다.

고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블랙푸드(BlackFoo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맞물려 해외시장에서 흑삼에 대한 관심 역시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흑삼은 찌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다보니 신맛, 쓴맛, 단맛 등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데 해외바이어들이 미묘한 차이를 단번에 알아차리더라고요. 흑삼사업은 이미 국내에서 포화상태이지만 이에 비해 흑삼은 전망이 밝습니다. 제품의 다양한 효능은 이미 검증받은 만큼 해외 판로 개척에 주력해 금산 인삼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김혜동 khdl226@korea.kr

달콤시원 충남 배, 13억 인도인 '입맛 저격'

아산농협, 5톤 규모 첫 수출

검역요건 충족 노력 '결실'

충남의 대표적인 수출 농산물인 배가 베트남 등 중앙아시아를 넘어 13억 인도 시장에 첫발을 내딛는다. 이는 2018년 인도 시장이 개방된 이후 첫 수출로, 향후 인도 소비자 반응에 따라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는 지난 15일 아산원에농협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유통공사, 충남농협경제지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배 인도 첫 수출 선전식'을 개최했다. 도는 앞서 충남 배를 인도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인도지역 수출 전문 업체와 공동으로 시장을 조사해 왔다.

푸드홀(Food Hall) MKT 마켓과 메가시티 몰(Mega City Mall) 등 인도 시장 내 최고급 유통매장의 문을 두드렸고, 달콤하고 시원한 충남 배가 인도인의 입맛을 저격했다.



박병희 도 농림축산국장(사진 오른쪽 네 번째) 등 관계자들이 아산배의 인도 첫 수출을 기념하며 테이프커팅식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인도로 배를 수출함에 있어 까다로운 검역 요건이었다. 수출 농가인 아산원에농협은 인도 배 수출 선과 장으로 등록하고, 수출할 배를 40일간 저온처리실에서 저온처리(0℃) 후 병해충 유입을 완전히 차단했다. 검역요건을 갖춰 수출되는 배의 양은 5톤(약 500박스) 규모로, 약 5000만 원의 부가가치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박병희 도 농림축산국장은 "그동안 충남의 배 수출 주력국가는 미국과 대만으로 지난해 베트남 수출이 확대되면서 사상 최대인 276만 달러 수출실적을 달성했다"며 "중국과 인도 간 국경분쟁으로 중국산 배가 인도에 진입 못하는 사이, 인도시장의 까다로운 검역요건을 충남이 충족했다"고 말했다.

●농식품유통과 041-635-4163

'초록배' 그린시스 농가 보급 확대

당도 높고 과즙 풍부한 신품종

9월 하순 수확 가능

검은별 무늬병 저항성 20배 ↑



그린시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국산 신품종 배 '그린시스' 농가 보급을 확대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농기원은 농가의 품종 다양화를 위해 지난 2017년 그린시스 등 국내 육성 신품종 배를 도입하고 시범 재배해왔다.

올해는 신품종 보급 확대를 위해 각 시·군의 시범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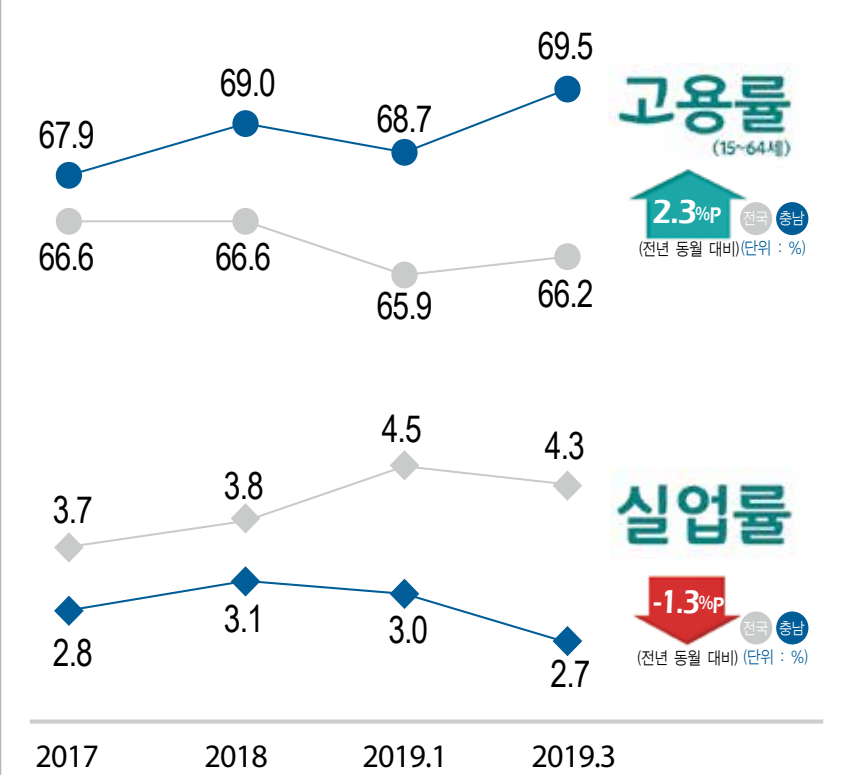
신품종 재배 기술 지도 및 충남 특화 가능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그린시스는 연한 초록색 껍질이 특징이며, 9월 하순에 수확 가능하다.

그린시스는 또 석세포가 거의 없어 과육이 부드럽고 과즙이 풍부하며, 당도가 높다.

이뿐만 아니라 배 농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 검은별무늬병에 대한 저항성이 기존 '신고' 품종보다 20배 강해,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술원 041-635-6083

충청남도 3월 일자리 상황판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본격

지역주도 제조혁신 앞당긴다

충남도는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스마트공장 구축 희망 기업 모집과 함께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사업(50% 지원)과 연계해 20%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로써 충남에 소재한 스마트공장 기업은 구축비용의 최대 70%(국비 50%, 지방비 2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 참여 희망기업은 충남테크노

파크(TP)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접수 후 현장방문 및 서류평가를 통하여 대상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재정상황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 조기에 스마트공장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도와 충남테크노파크(TP)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래성장과 041-635-2913



공백 없는 충남 보육...전국 최초 '24시간제 어린이집' 개원

충남아이키움뜰 개원

지난 23일 내포신도시 내에 전국 최초로 '24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형 24시간 어린이집 '충남아이키움뜰'이 문을 열었다. 충남아이키움뜰은 병원 이용이나 야근, 경조사 등 부모들이 아이를 긴급하게 맡겨야 하는 상황 발생 시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옛 도지사 관사를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모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실현을 위한 충남도의 노력이 또 한 번 결집된, 아이키움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월요일 오전 9시~금요일 밤 12시
24시간, 긴급 보육수요 대비

아이키움뜰은 24시간제 어린이집으로 개원했지만, 상시 보육이 아닌 시간제 보육을 전담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24시간 어린이집과 구별된다.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전담 운영하며 월요일 오전 9시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 주·야간 시간제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서비스는 한 시간 단위로 제공되며, 부모 및 양육자의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충남아이키움뜰 온라인예약 시스템(<http://cnicare.or.kr/>)을 통해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주간 보육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대상은 6~36개월 영·유아 중 양육수당 대상자이다. 시간당 이용료는 4천 원이나, 3천 원까지 지원이 이뤄져 1천 원만 자부담하면 된다.

야간 보육은 월~금요일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이뤄지나, 금요일은 밤 12시까지만 운영된다. 대상은 24개월~만 5세 미만 취학 전 아동으로, 아동과 양육자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야간 보육은 시간당 4천 원의 이용료 전액 자부담이

주간 보육

- ▶이용 대상 : 6~36개월 영·유아 중 양육수당 대상자
- ▶이용 인원 : 2개반 6명 (1개반 3명)
- ▶이용 시간 :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제외
- ▶이용 가격: 본인부담 1천원

야간 보육

- ▶이용 대상 : 24개월~만 5세 미만 취학 전 아동
- ※ 아동과 양육자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함
- ▶이용 인원 : 2개반 6명(1개반 3명)
- ▶이용 시간 : 월~금요일(오후6시~익일 오전 9시)
- ※ 금요일 야간은 12시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제외

이용 방법

- ▶제출 서류 : 신청서, 운영규정 서약서,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후 반환)
- ▶사전 예약 : 1시간 단위 산정, 예약시간 만큼 수납
- ▶비용 결제 : 카드결제 원칙 (※모든 카드 가능)
- ▶예약 방법 : 온라인예약관리 시스템 (<http://cnicare.or.kr/>)
- ▶문의 : 070-4218-8538



다. 주·야간 보육 모두 사전 예약 후 현장 방문 시에는 신청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타 시·도 24시간 어린이집과 비교했을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주야간 모두 1개반 3명씩 총 2개 반이 운영돼, 세심한 맞춤형 보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옛 관사를 아이들 공간으로

2개월 걸친 의견수렴 후 결정

아이키움뜰은 옛 도지사 관사의 용도전환을 위한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이뤄졌다. 지난해 7~9월 사이 진행된 자문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옛 도지사 관사를 개방된 도민들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데 동의했다. 구체적으로 충남형 24시간제 전담어린이집, 복지시설의 숙소, 문학레지던시, 자원봉사 상



설존 등으로의 전환이 검토됐고, 최종적으로 '충남형 24시간제 전담어린이집'으로 확정된 것이다.

24시간 어린이집의 명칭은 지난달 26~29일까지 도민 공모를 통해 확정됐다. '충남아이키움뜰', '충남아이동

지', '충남아이사랑'이 후보에 오른 끝에, '아이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키워내는 뜰'이란 의미의 '충남아이키움뜰'이 최종 선택됐다.

이번에 개원한 아이키움뜰은 2150㎡의 부지에 건축물 4개동, 건축 연면적

340.8㎡ 규모다. 위치는 수암산 자락의 흥성군 흥북읍 흥원로 15번지이다. 아이키움뜰 내에는 기존 내포신도시 내 보훈회관 1층에 자리하고 있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분소가 함께 이전해 온다. 장난감 및 도서 대여 등의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제공받을 수 있어, 영·유아 자녀를 둔 양육자들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움노리·이동식 놀이교실 등 원스톱 보육 서비스 집약

키움노리는 도내 부모 및 보육교직원 중 만 0~5세 아동을 둔 가정에 장난감과 도서를 대여해 주는 유료 서비스다. 연회비는 2만 원으로, 현재 10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해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수요일은 오후 7시까지 한 시간 연장 운영한다. 1회 대여 수량은 장난감의 경우 대형 1점, 소형 2점이다. 도서는 최대 5권까지 대여되나, 장난감 대여 시 3권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한 번 대여 시 최대 2주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도내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의 영·유아 가정에는 이동식 놀이교실인 키움놀이가 직접 찾아가 대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키움놀이가 대여뿐만 아니라, 놀이감 활용방법과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도내 회원은 200여 명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한편 키움놀이뜰에서는 센터 가정양육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다양한 부모-자녀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또한 온·오프라인 양육상담을 통해 보육 관련 고민 해결에 보탬이 되고 있다.

이처럼 충남도 보육 서비스가 한 곳에 집약된 '아이키움뜰'의 개원을 통해 충남도의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한 노력이 한 단계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보육정책과 041-635-4543 /손유진 syj0319@korea.kr

대전시 출범 70년, 광역시 승격 30년

2019~2021 대전 방문의 해

대전여행 "천만시대"를 열다

대전 방문의 해

소소한 체험부터 특별한 여행까지!

- 이용노와 "예술여행"
 - 이용노미술관, 예술의전당, 와인페스티벌, 장태산 휴양림 등
- 독특한 "과학여행"
 - 사이언스페스티벌, 대덕특구·과학관 등 과학수학여행
- 맛&멋 "재미여행"
 - 대전역 아시안, 뮤직&댄스 페스티벌, AR·VR실증체험
- 함께 "문화유산 답사"
 - 이사동 인속마을, 옛 충남도 관사촌, 뿌리공원, 신채호 생가 등

대전광역시
DAEJEON METROPOLITAN CITY

※이 광고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교환홍보입니다.

전국 최초 농협과 공동 의료복지 구축

‘자살 예방’...한·일 한뜻

상향식 맞춤형 3농정책 결실 인주농협 요양원 준공 이취



김용찬
행정부지사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농협과 함께 도내 의료복지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역혁신모델’의 새로운 획을 그었다. 지역혁신모델이란 지역농협이 주도해 농산물 생산·유통부터 정주와 문화까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을 지역민과 수립·추진하면, 도와 시군이 이를 지원하는 ‘상향식 맞춤형 3농정책’이다.

충남도는 지난 12일 아산시 인주면에서 김용찬 행정부지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주농협 요양원 준

공식을 개최했다. 3농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완공된 인주요양원은 농협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 농촌지역의 의료복지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1만 2562㎡의 부지에 지상 3층으로 지어진 요양원의 입소 인원은 49명이다. 향후 운영 성과와 호응에 따라 70명까지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직원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보호사, 조리원 등 총 29명으로 지역민을 중심으로 채용된다.

도는 이번 요양원 준공을 계기로 농어촌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내적 발전, 지역에 맞는 새로운 농촌 건설을 위한 지역혁신모델을 지속해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동천안, 당진 신평, 부여 규암, 청양 화성, 금산 부리농협 등 5개 농협이 지역혁신모델 대상이다.

김용찬 부지사는 “오늘 준공된 요양원은 주민의 의료와 복지를 향상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농촌 양극화 극복을 위해 소농과 고령농을 배려하고, 함께 잘사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업정책과 041-635-4025

양국 자살 실태·대책 공유 유형별 맞춤형 예방책 논의

충남도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천안 시청 대회의실에서 자살예방주간 및 제47회 보건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한·일 자살 예방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양국의 자살 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민관 협력 사업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일본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 모토하시 유타카 센터장과 중앙심리부검센터 전홍진 센터장이 각각 자살 현황을 분석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자유토론에서

는 각계각층 자살 예방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연령·직업·생활수준·고위험지역·자살수단별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을 심도 깊게 토론했다.

김용찬 도 행정부지사는 “자살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경제·사회·문화·일자리 등 다각도로 접근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실제적인 정책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자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농약·번개탄 보관함 보급 확대, 우울증 선별 자살고위험군 멘티-멘토 결연, 자살 유가족 치료비 지원, 당사자 활동가 양성, 생명지킴이 교육 등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3

‘해삼산업 클러스터 조성’ 신성장 동력 추진

2032년까지 생산량 6000톤 매출액 5000억 달성 등 목표

충남도가 ‘해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신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한다. 도는 지난 12일 도청에서 ‘충남 해삼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용역을 맡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이날 ‘해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2032년까지 해삼생산량 연 6000톤, 매출액 5000억원 달성 등을 골자로 한 충남 해삼산업의 비전을 제시했다.

지난해 도내 273개 지역(3187ha)에서 생산된 해삼량은 약 1200톤으로, 전국 2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해삼 생산 가공 기반이 취약해 대부분 저부가가치 상품인인 자숙 또는 염장, 건해삼 상태로, 중화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 해삼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종자부터 중간육성, 양식, 가공, 유통·판매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령시와 태안군을 충남 해삼특구로 지정, 개별 규제완화와 해삼산업이 지역 내 특화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어촌산업과 041-635-4843

사회공헌활동 지원 ‘돌입’

만50세↑ 퇴직자, 경력 활용 연 480시간 활동, 수당 지원

충남도와 충청남도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컨소시엄을 맺고 진행하는 ‘2019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센터는 지난 4일과 12일, 각각 충남교통연수원과 해전대학교에서 참여자 329명과 참여기관 담당자 71명을 대상으로 사전 기초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사전기초 직무교육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이해 ▲참여자, 참여기관의 역할과 의무 ▲활동 분야의 이해와 사례공유 ▲공감세대별 이해하기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필요한 참여자의 역량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참여기관의 담당자들은 원활한 사업 운영 및 참여자 관리를 위한 교육이었다.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은 만 50세 이상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퇴직자와 공익적 사회 서비스를 원하는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을 연계해 지식과 재능,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이다. 올해로 6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이수한 참여자는 11월까지 연간 480시간 이내로 충남의 70여 개 기관에서 자신의 경력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며 매월 활동시간에 따라 참여수당, 활동실비 등을 지급받는다.

●충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 041-635-1077

3개 지역아동센터와 협약 스마트폰 건강한 사용 도와

충남도와 충남스마트쉼센터가 청소년들의 건강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3개 지역아동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3개 지역아동센터는 부여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충남지원단,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충남지부 등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도와 각 센터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해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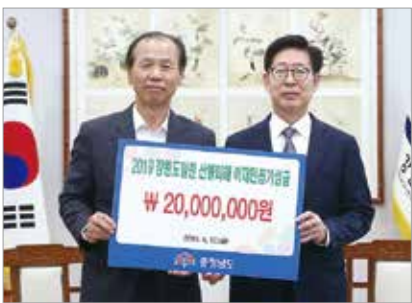
특히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및 상담 활동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아울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증후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적극 협조하고, 기타 상호 발전과 상호 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협조하기로 했다.

●정보화담당과 041-635-3712

단 신



강원 산불, 구호성금 전달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12일 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성금을 기탁했다. 양 지사는 이날 강원도청에서 최문순 지사를 만나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위해 써 달라며 성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양 지사는 “한순간에 대형 산불로 보급자리를 잃고 슬픔에 잠긴 피해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하루 빨리 피해가 복구돼 주민들이 아픔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운영지원과 041-635-3512

도서·오지 ‘고장 농기계’ 수리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도서·오지 지역 농민

인들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수리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일 보령 장고·삼시도를 시작으로 원산도, 당진 난지도, 서산 고과도리, 우도분점도, 태안 정당리, 금산 역평리 등 상반기에 7곳을 방문해 실시한다. 특히 소형 농업기계는 농업인이 직접 정비와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한다.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도서 지역 3곳에서 100농가 108대의 농업기계 수리 지원 및 정비 교육을 진행, 부품·운송·수리비 등 약 7000만 원의 농가 경영비 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역량개발과 041-635-6209

차세대 수산 인재 양성 주력

충남해양과학고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수산계 고교 특성화 교육실습장비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해양과학고는 국비 4억 8000만 원을 확보, 실습장비 및 시설 보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해양과학고는 선박기관실습장비가 없어 실제 선박에 탑승해 실습을 받았던 게 사실이다.

도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다양한 선박기종의 주기관 및 배관계통 실습과 국제협약의 조건을 충족한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양수산국 041-635-4132

충남연, 공동 MOU 체결

충남연구원(원장 윤환)은 지난 15일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충북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와 중부권 위기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충북대학교에서 가진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지역 발전과 재난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연구 ▲정책의 제 개발 ▲학술교류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는 2016년 개소하여 재난, 안전사고의 체계적 분석 및 도내 재난안전 DB 구축과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도내 안전기반 강화 사업 등을 연구·지원하고 있다.

●충남연구원 041-840-1126

‘부처님 오신 날’, 화재예방 총력

충남소방본부는 ‘부처님 오신 날’을 대비해 내달 13일까지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 연등 설치 및 전기와 가스 등 화기사용 증

가로 화재위험성이 증가된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내달 3일까지 전통사찰 등 목조문화재 269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 화재요인 제거와 안전관리 지도를 한다. 또한 국보·보물로 지정된 전통사찰 11개소와 각 소방서별 주요사찰에 대해서는 소방지휘관이 직접 현장 방문하여 안전컨설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화재예방 캠페인을 집중실시하고 소방력을 전진 배치해 초기대응 태세 구축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화재대책과 041-635-5594

해협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17~18일 기술원 어린이농업교실에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해협·HACCP) 전문 인력(팀장 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내 소규모 농산물 가공 농가에서 생산하는 과자류, 빵떡류, 음료류 등 대부분의 품목이 해협 의무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종사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제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정한 ‘원칙 12절차’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해협은 식품 원재료의 생산 단계부터 제조·가공·보존·조리·

유통 등 모든 과정에 대한 위생·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소규모 가공 농가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규모 해협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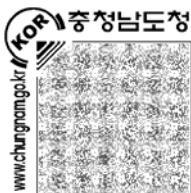
●농업기술원 041-635-6192



청소년 주권의식 함양 ‘한뜻’

(재)충남청소년진흥원(원장 박영의)과 충남선관위는 지난 18일 도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협력적 관계 유지와 5월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및 유권자의 날 연계운동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미래의 유권자인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주권 의식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을 통한 청소년 사업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지속적인 상호연대를 해나갈 예정이다.

●충남청소년진흥원 041-562-9003



‘성평등 수준 향상’ 유관기관 머리 맞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경단너 취·창업 지원 등
일·가정 양립 실현 노력

충남도는 지난 16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충남 성평등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성가족부 ‘2017년 지역성평등지

수’ 자료에 따르면 충남은 레벨 4단계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여성정책개발원 김영주 연구위원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충남 성평등지수의 현실적인 문제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이어진 유관기관별 사업성과 및 성과보고에서는 도를 비롯한 9개 기관이

각각 성과와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각 지표별 지수 향상 방안 및 기관 간 협력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경제활동 분야와 안전 분야 등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연관지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 및 폭력예방 교육,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윤동현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충남의 성평등 수준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이 실현되는 ‘더 살기 좋은 충남’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6개의 양성평등 비전 실행과제와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5개의 양성평등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보령·당진·금산 등 3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기초센터 더저버너스를 구축·운영하고 2020까지는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정책관실 041-635-2042



충남 성평등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부터 실천하는 ‘저탄소생활’

폐건전지 교환·소동행사 등
22일, 지구의 날 행사 다채

충남도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제11회 기후변화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구의 날 전후 일주일인 기후변화주간에 맞춰 도민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는 홍보를 전개함으로써 저탄소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와 관련, 도와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19일 도청 본관 지하 1층에서 폐건전지 10개를 모아오면 새 건전지 2개로 교환해 주는 ‘폐건전지 교환 행사’를 진행했다.

20일에는 예산군 옛 향천유치원 인근에서 산림문화체험대회 참가자 및 도민을 대상으로 저탄소생활 실천 다짐 퍼포먼스,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서약서 작성, 온실가스 줄이기 관련 홍보물과 미세먼지 마스크를 배부 등

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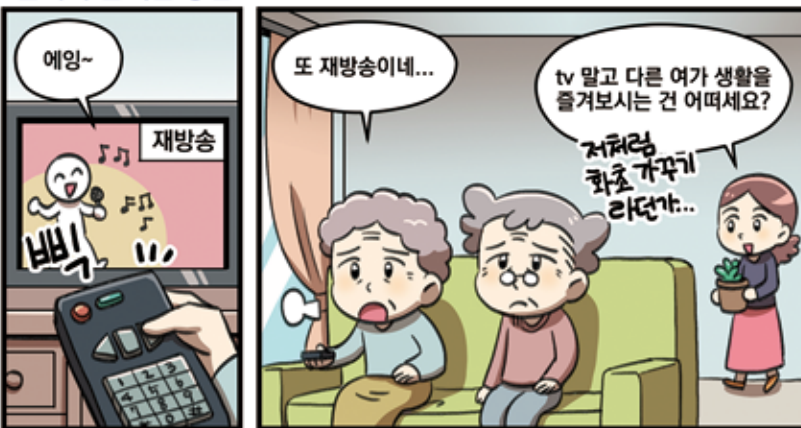
행사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지구의 날을 기념해 도와 15개 시·군에서 주요 공공건물과 주민을 대상으로 20시부터 10분간 소동행사를 진행하며, 저탄소 생활 실천 운동에 도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 산타바바라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미국에서 2000만 명의 자연보호론자들이 모여 자연보호 캠페인을 전개한 날을 기념해 제정됐다.

●기후환경정책과 041-635-4417



“문화가 숨쉬는 충남도!”



충남도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활동을 위해 노력합니다.

- 2021년 충남스포츠센터 개소
- 2021년 충남유교문화원 개원
- 충남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예정
- 2023년 충남도립미술관 건립

“헉! 헉! 헉!”

※웹툰 '남이네 가족'은 도민과의 도정 소통을 위해 충남문화산업진흥원과 공동 기획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날 흔들린 건 다름 아닌 이 세상이었다



사서들의 서재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 저, 창비, 2017〉

“세상은 자주 잊으려고, 그만하라고. 그리움은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데 그만하라고만 해요. ...중략... ‘엄마 아빠의 동료가 되어 진실에 다가가겠다’, 이런 말이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력하기 때문이겠죠. 진실을 위해 싸우기 때문에...”(본문 중)

꽃처럼 예쁜 아이들이, 한창 예쁜 나이에 꽃잎처럼 날아갔다. 손에서 놓으면 잃어버린다고 누가 그랬던가. 생각에서 잊으면 잊어버린다. 우리는 그리고 세상은 아직 그들을 기억하고 있을까.

이번에 소개할 책 ‘다시 봄이 올 거예요’는 세월호 참사 이후, 그 시

간을 되묻는 생존자 학생과 그 가족들이 못 다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필자는 그들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자 이 책을 들었다. 왜 다시금 그날의 아픔들을 듣고 싶었는지는 나 자신도 모르겠다. 혹시 생각에서 잊어버린 죄책감이 이유였을까. 아니면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 때문이었을까. 책을 읽으며 언론을 통해 보지 못했던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바로 피해자의 자매와 형제들이다. 그동안 피해자 부모들의 목소리는 많이 들어보았지만, 정작 유가족의 남은 자녀들 이야기는 비교적 덜 알려져 있었다. 남겨진 피해자의 형과 누나, 그리고 동생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책을 읽다 보면 문득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어린 나이로 아픔을 버텨내며 그날에 느꼈던 감정과 생각들을 다시 밖으로 꺼낸다는 것은, 그 고통이 매우 아려올 것임에도 아이들은 우리를 위해 이야기해 준다. 그들은 슬픔의 고통과 눈물의 아픔에 침잠하며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들 스스로가 다시 예전과 같을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고 담담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어른으로서 성장

하고 있었다. 바로 이런 의젓함이 그들보다 ‘어른’인 나를 고개 숙이게 만들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행복을 느끼는 매순간에도 늘 슬픔이 동행했던 나날이지 않았을까. 슬픔과 고통도 멎치면 더 강해지기 마련인데, 몇몇 어른들은 이제 그만 하라고 한다. 잊으라고 한다. 그러나 이 참상의 마침표를 쉽게 찍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시간의 흐름 속에 유가족의 아픔은 차츰 잊힐 것이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른들의 무능함이다.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그날 흔들린 것은 배가 아닌 바로 ‘우리-어른들’인 것이다. 그날 고통에서 벗어나려 손발이 터지도록 두드렸을 문과 창을 우린 부숴 주지도 깨트려 주지도 못했다. 마음속에 노란 리본을 묶고, 서투른 기도를 한다. 또 한 페이지 책장을 넘기며, 꽃이 되어버린 아이들에게 위로와 미안함을 전한다.



유재열
충남도청
행정자료실 사서



문화행사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일시 : 5월 3일~6일
 ■석장리는 우리나라 구석기 발굴과 연구가 처음 시작된 곳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사문화축제로 발전하고 있는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에서 구석기 문화의 색다른 체험과 재미를 느껴보자. 5월 5일 금강신관공원에서 열리는 어린이날 행사까지, 더 커지고 풍성해진 축제를 즐겨보자.
 ■장소 : 공주 석장리박물관 일원
 ■문의 : 041-840-8112

부소산 봄나들이

■일시 : 5월 4~6일
 ■달빛걷기 라디오티어링대회, 백제역사투어, 물총대첩, 열기구 탑승체험, 정립사지 오층석탑 쌓기, 달빛 버스킹, 야간 홀로그램 공연 등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인 부소산에서 봄을 만끽해보자.
 ■장소 : 부여 관북리유적, 부소산 일원
 ■문의 : (접수)042-281-1137

개그 핫 콘서트

■일시 : 5월 1일~
 ■개그패밀리의 개그 핫 콘서트. 입소문으로 이미 검증된 공연. 울다가 웃



다가 뽕뽕 터지는 웃음으로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보자.
 ■장소 : 아산 도고면 아산만로 171 아산 코미디홀
 ■문의 : 041-542-5145

LIVE POWER MUSIC

■일시 : 5월 11일 오후 9시
 ■서산시 승격 제3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특별한 공연. 황보, 홍진형, 버즈, 벤 등 인기가수와 함께 시립합창단, 뜬쇠 예술단, 장수민 등이 열정의 무대를 펼친다.
 ■장소 : 서산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특설무대
 ■문의 : 041-661-8029



태안 세계튤립축제

■일시 : ~5월 12일
 ■2019 태안 세계튤립축제는 2018년과 달리 관람객들에게 많은 포토존을 제공한다. 화려한 카페트 모양의 1경, 모나리자와 마블린먼로의 2경, 판타지 영화의 느낌이 드는 3경. 여기에 열대 지방을 연상케 하는 야자수 숲속, 물 위에서 펼쳐지는 수상정원, 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풍차 전망대까지 만나볼 수 있다.

■장소 : 코리아플라워파크
 ■문의 : 041-675-5533



도불60주년 이응노·박인경展

■일시 : ~5월 26일
 ■세계적인 거장 이응노 화백과 박인경 화백의 도불 60주년을 맞이하여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총 73여 점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태어난 고향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야만 했던 이응노와 박인경의 행로와 그의 그림이 태어난 이 땅의 근원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빛나는 역설을 담았다. 일제 치하의 굴욕, 동족상잔 전쟁의 참상, 남북 분단의 쓰라림 등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었던 두 예술가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장소 : 흥성군 이응노생가기념관
 ■문의 : 041-630-9232

임용빈 '인간의 길' 展

■일시 : 5월 1일~30일
 ■모산조형미술관은 '인간의 고향'이라는 키워드로 오는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임용빈 작가의 '인간의 길'展을 개최한다. 충남 보령을 기반으로 전국적인 작품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는 작가의 대표작들을 만나보자.
 ■장소 : 보령시 모산조형미술관
 ■문의 : 041-933-8100

충청의 수부 공주와 국악

기고



최창석
공주문화원장

국악(國樂)이란 예로부터 전해 오 우리의 음악, 다시 말해서 한국의 전통음악이다. 언어와 기록이 없던 선사시대에도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즐기던 다양한 노래들이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것이 없으니 알 수 없다.
 기록으로 보면 고구려 유리왕이 지었다는 '황조가', 백제의 '정읍사'와 '서동요', 신라의 향가와 우륵의 가야금 등이 가장 오래된 노래와 악기이다. 여기에 더해 능산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금동대향로에 조각된 오악사의 악기들도 그 범주에 들 수 있다.

조선 시대 와서는 우리 음악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하나는 궁중에서 행해지던 당악(唐樂)과 아악(雅樂)이다. 당악은 궁중의 조회 또는 향연 시에 행해지던 음악이요, 아악은 조선시대 가장 중요시되던 제례에 사용되던 궁중음악이다. 또 하나는 속악(俗樂) 또는 향악(鄕樂)이라 부르는 것으로, 향토에 뿌리를 둔 토속적인 음악이다.
 속악은 다시 전문 소리꾼과 고수가 같이 장단을 맞추어 노래하는 판소리, 양반층에서 유행했던 시조창, 그리고 일반 농민들 사이에서 불리던 노동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충청남도는 국악과 긴밀한 연관을 갖는다. 그중에서도 공주는 백제의 왕도로서, 국악의 다양한 장르에서

그 명맥을 잘 이어 오고 있다. 공주대의 학자와 교수들이 백제 궁중기악과 미마지 등 백제 악무를 연구하고 있으며, 공주문화원에서는 내포제시조 전국경창대회를 수십 년간 운영해 왔다.

조선후기 명창으로 유명한 김석창, 황호통, 이동백, 김창룡, 정춘풍, 고수관, 김초향 등의 명인·명창들이 공주에서 태어났거나, 공주에 살면서 음악 활동을 하였다. 그들이 공주에 와서 활동한 이유는 경제적으로나 인지도 면에서 여러모로 유리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 후의 명맥을 박성환 명창 등이 이어오고 있다.

현대에 와서는 한국 판소리의 대명사인 '제비 몰러 나간다'로 유명한 국창 박동진 선생이 태어나 말년에 활동을 한 곳이 공주다. 그로 인해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이 건립되었고, 그의 수제자 김양숙 등이 판소리 전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주아리랑은 정선·진도·밀양아리랑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많이 불린다. 특히 경기민요 이수자인 남은혜 명창이 보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속악으로 봉현리 상여소리, 의당 집터다지기, 선학리 지게놀이, 단천 장승제 등이 충남의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었다. 민속 채록 전문가인 이결재 선생은 하대리 칠석제, 마을 풍장놀이 등과 같은 전통 음악을 꾸준히 발굴·채록해 왔다.

결론적으로 공주는 국악의 다양한 장르가 발달하였고 잘 보존되고 있는 전통적인 예향이다. 임진왜란 이후 300년이 넘게 충청의 수부도시 역할을 하며 국악을 비롯한 문화 전통이 지켜져 쌓여 그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는 도시라 할 수 있다.

외롭지만 당당한 선비의 자태

변상섭의 그림읽기

남정 박노수-류하(柳下)

정제된 한 편의 서정시를 읽는 기분이다. 쓸쓸함·고요함·외로움 등 심금을 울리는 시어(詩語)가 두런거리는 듯하다. 전통 한국화의 틀에서 살짝 비껴났지만 한국적 정서가 물씬 풍겨 감상자의 시선을 끌어들이는 장력이 강하다.

현대 한국화단의 대표작가 남정(藍丁) 박노수(1927-2013) 화백의 작품이 주는 매력이다. 남정의 화업 70년은 한마디로 '격조의 예술'이다. 성품도 그렇다. 고고한 자태의 선비 그 자체다. 한평생 울곧게 격조의 예술세계를 펼쳐왔다는 얘기가 다.

류하(柳下·1980)는 남정 '격조 예술'의 정수이자 고갱이 같은 존재다. 산수는 누구나 그리지만 격조와 품격을 갖추는 것은 쉽지 않다. 고수의 경지에 올라야 비로소 가능한 영역이다.

남정은 1995년 봄 언저리에 필자와 대담에서 "화가는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한다. 하지만 제멋에 겨워 생각 없이 그린 그림을 내놓아서 안 된다.

반드시 격조와 품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격조를 신조로 여긴 탓인지 그의 작품마다 선비의 품격



수묵담채화, 1980년작, 97x179cm

이 배어난다.

작품 속은 온통 남색 비가 내리는 것 같다. 남정의 트레이드 마크인 블루 컬러로 수양버들의 잎을 묘사했다. 머리를 풀어헤친 듯 땅으로 뻗어 내린 가지는 바람이 불면 금세 보랏빛 주렁처럼 일렁일 듯이 긴장감이 팽팽하다. 청색과 백색의 대비, 그리고 선명하고 투명한 청색조의 윤치가 눈부실 정도다.

남색이 주는 청량감과 시원함도 그만이다. 버드나무 그늘아래 한 남자가 동그마니 서서 사색을 하는지 아니면 뭔가를 기다리는지 다층적 의미를 내포한다. 한가함과 외로움, 그리고 계절이 주는 생동감이 오버랩 된다.

푸르다 못해 서러운 기색이 도는 풍광에 둘러싸인 남자는 외롭지만 당당하고 강직한 이미지다. 온갖 세파를 마주하고 있지만 이상이 있기

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울곧은 모습이다. 단아하고 깔끔한 남정의 성품이 그렇듯 '류하' 속의 사내는 창조된 작가의 분신이다. 남정은 작품마다 앉거나, 서거나, 피리를 불거나, 먼 곳을 바라보는 소년 또는 선비를 등장시켜 자신의 감정이입 대상으로 삼았다.

소년과 선비는 작가가 소망하는 고고한 이상 또는 절개를 상징하는 것이다.

남정은 충남 연기(현 세종시)의 한학자 집안 출신이다. 열여섯에 청전 이상범의 문하에 들어가 그림 공부 하다가 서울대 미대를 졸업한 해방 후 국내대학 1세대 작가로 전통 한국화를 현대화하는데 기여한 화가로 평가받고 있다. 영화배우 이병헌의 아내 이민정이 남정의 외손녀이다.

/충남문화재단 문예진흥부장

아산시 망경산 변산바람꽃

국미나의 꽃이야기

젓더미속에서도 봄이 오듯 가는 줄기 흔들리며 꽃피움



망경산 수철리 숲에는 봄이 막바지다. 얼음이 풀이는 물소리에 봄을 알리던 2월을 넘어 물오른 나무들이 저마다 잎을 돋우는 잎새달이 찾아왔다.

맹사성 고택 행단에는 겨울을 이겨낸 까치들이 등지를 틀고 짹짹기에 분주하다.

복수초 꽃은 진지오래고 새로 핀 변산바람꽃이 돌을 비집고 나와 불 밝히고 있다.

밭 둔덕에 심어놓은 복사꽃이 눈망울에도 꽃을 피우고, 겨우내 고목처럼 버티고 서있던 감나무에도 새살이 돌아난다.

겨우내 불어대던 북풍이 서풍에 밀려 자리를 내어주면서 전국이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다.

힘든 일에 지쳐 쉴 때쯤 바람에 덩실 춤을 추며 위안을 주었던 진달래도,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도 젓더미 속에 묻히고 가슴은 숲 검댕이가

되었다. 화재 진압 소식에 희망의 일기를 쓴다.

"역사의 위기 속에서도 나라를 지켜낸 위대한 힘을 가진 민족. 젓더미 속에서도 봄은 오듯이 힘내세요"

망경산 자락 수철리 계곡에 봄을 알리는 전령사 변산바람꽃은 변산에서 처음 발견되어 지어진 이름이다. 변산바람꽃은 변산 이외에서도 볼 수 있는 꽃이나 개체수가 많지 않아 멸종위기 식물로 보호를 받고 있다.

바람꽃이라는 학명을 가진 식물은 줄기가 가늘어 바람에 쉽게 흔들린 다해 붙여진 이름이 대부분이다.

꽃말은 '덧없는 사랑', '기다림'이며, 바람꽃 종류에는 바람꽃, 너도바람꽃, 나도바람꽃, 만주바람꽃, 백두바람꽃, 꿩의 바람꽃, 외대바람꽃, 흠아비바람꽃 등 10여 종류다.



망우보뢰 (亡牛補牢)

내포칼럼



전 일욱
단국대학교 교수

- 작년 충남에서 산불 27건
- 입산객 36%·논밭소각 17%
- 쓰레기 소각 14% 順
- 내화성 약한 수종이 최근
- 대형 산불 막으려면
- 내화성 강한 수종 심고
- 활엽수 방화수림대 조성해야
- 진화 위해 진화헬기 보강도

우리 속담에 망우보뢰라는 말이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산불이 그렇다.

산불통계 연보를 보면, 산불은 2016년 391건, 2017년 692건, 2018년 496건, 2019년 현재 388건으로 집계되어 있다. 1996년부터 2018년까지 대형 산불(100ha 이상·24시간 이상)은 전국에서 4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총 3만9천271ha의 산림을 태운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ha) 135배가 넘는 규모이다.

산악지대가 전국도의 70%에 해당하는 우리나라로 볼 때,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산불로 인한 재해로부터 안전지대는 없다. 작년기준 충남의 경우 27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8번째로 산불이 많이 발생한 지역이다. 어떻게 하면 대형화되는 산불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까? 산불의 원인분석을 통해 가장 기본적인 예방과 확산방지 대책을 찾아보자.

우리나라 산불이 발생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입산자실화 36%, 쓰레기소각 14%, 논밭소각 17%, 성묘객 실화 4%, 담뱃불 실화 4%, 건축물화재 4%, 어린이불장난 1%, 기타 20%로 나타났고, 산불이 대형화되는 3대 원인은 건조한 날씨, 강한바람, 내화성이 약한 수종 때문인 것으로 진단되었다.

산불 발생의 직접적 원인을 막기 위해서는 산불예방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교육기관, 야외활동단체, NGO단체, 유튜브 등을 통해 산불의 원인과 위험성

을 알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국민을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해야 한다.

산불의 대형화를 막기 위해서는 수종관리와 방화수림대 조성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산림에 주로 분포하는 침엽수인 소나무는 기름성분이 20% 이상 함유되어 산불확산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산불이 난 곳부터 소나무가 아닌 내화성이 강한 수종으로 식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 산주변의 주택이 산불에 타는 걸 막거나 다수시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지역으로 산불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사람이 사는 민가주변 일정거리에 불에 강한 활엽수 등으로 방화수림대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빠른 진화를 위해서는 '진화헬기'를 보강해야 한다. 작년 통계를 보면, 총 산불건수 496건 중 헬기진화건수는 408건, 인력진화건수는 88건으로 82%가 헬기로 진화했다. 충남의 경우 27건의 산불 중 헬기진화가 26번으로 96%가 헬기 진화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는 전국 47대 뿐이다. 특히 초속 25m 이상의 강한 바람에도 운항이 가능한 대형 헬기는 1대도 없다. 자체적으로 충남도는 빠른 시일 안에 대형 헬기를 마련해야 한다. 예산이 문제라면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예산을 마련하여 공동구입도 고려해야 한다.

산불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고, 발생이 되면 빠르게 진화하는 것이 또한 최선이다. 아무쪼록 망우보뢰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안에 도의 관계부처는 위에서 제시한 3가지에 만전을 기했으면 한다.

언어의 품격

변평섭의 사랑방 이야기



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우리나라 고유의 야생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야생화를 길러 시장에 유통시키는 기업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우리 야생화들은 이름부터 귀엽고 익살스럽다.

강아지 풀, 하늘 매발톱, 달개비, 머느리 밥풀, 노루 궁둥이, 제비꽃, 삼송방망이... 이루 셀 수 없이 많다. 그리고 아름답다. 아마 나태주 시인이 '꽃은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고 한 것은 이런 작고도 예쁜 우리 꽃들 가운데 눈에 띄이지 않을 냉이 꽃 같은 것도 오래 보면 참 신기하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이런 꽃들에 예쁘고 아름다운 이름을 붙

였을까? 그만큼 우리말이 아름다웠기 때문일까?

꽃 말만 아름다운 게 아니다. 옛날에는 부부 사이에도 존댓말을 했었다.

“부인, 오늘 밖에 좀 다녀오겠소”
“영감, 감기는 좀 어떠하오?”

그렇게 부부사이에도 상대방의 인격을 높여 대화를 한 것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들 부부 대화는 품격이 없어져 버렸다.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내를 ‘철수 엄마’ 하는 등, 마뜩치가 않다. 젊은이들의 SNS에서 사용하는 말은 국적도 없다. ‘네 그렇습니다.’를 ‘넵’하고 만다.

어느 나라 말일까? 정치인들의 막말은 더 기가 막힌다. 오죽하면 신문에서 그 말을 그대로 옮기지 못하고 “XX할걸” “XX끼” 등으로 표현할까?

우리 조상님들은 꽃 이름도 아름답고 유머러스 하게 부르고 부부간에도 존댓말을 쓰는데... 우리도 언어사용의 격을 높이자.

‘한 뼉의 작은 변화’를 응원한다

생생현장리포트



이 정 구
충남시사신문 기자

“한 뼉의 작은 변화가 세상을 바꿉니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은 비장애인에게도 더 살기 편한 세상입니다.”

‘한뼉인권행동’ (이하 한뼉)에서 소수자의 인권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목표로 삼는 운동은 지역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인권향상이다. 이 가운데 특히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생존을 담보하는 활동은 물론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활동까지 회원들의 의지를 모아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들에게 ‘한뼉’이라는 의미는 남 다르다. 한 뼉은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 한 뼉을 움직이는 데는 수많은 피땀눈물이 필요하다. 이들은 그렇게 한 뼉씩 세상의 편견과 맞서며 도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세상을 한 뼉만 움직이면 그 한 뼉만큼의 변화로 희망의 문이 조금 더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누구나 누리는 당연한 권리들을 하나씩 배워나가고 있다. 어떤 친구는 선천적으로 불편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 또 다른 친구는 육상선수를

할 정도로 누구보다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나 불의의 사고로 불편한 몸이 되었다. 어떤 이유든 중증장애인의 눈에 세상은 온통 장애물 투성이다. 그 장애물을 하나씩 걷어내는 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하게 느껴야 할 소중한 권리이면서, 동시에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책임이기도 하다.

한뼉은 2012년 5월8일 중증장애인 인권실천연대라는 모임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결성 당시에는 지역의 최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모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지만 많은 한계에 부딪혔다. 이후 중증장애인들이 보다 폭넓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해 2년이 지난 2014년에 ‘한뼉인권행동’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한뼉은 중증장애인당사자 20여 명을 중심으로 이들을 금전적으로 후원하거나 재능기부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시민 등 130여 명으로 구성됐다. 월 후원금은 100만원 안팎이다. 후원금만으로 상근직원 급여를 포함해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빠듯하다.

그러나 한뼉은 지쳐쓰러지거나 멈추지 않는다. 스스로를 집 안에 가둬버린 중증장애인을 밖으로 불러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만남을 주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더 많은 관심과 제도권의 지원이 절실한 이유다.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기본권이 장애인 또는 소수자라는 이유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 한뼉의 인권행동을 응원한다.



중증장애인들은 한뼉인권행동을 통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누구나 누리는 당연한 권리들을 하나씩 배워나가고 있다.

내포에 동학을 전파한 대접주...박인호·박희인

사람이 곧 하늘이다(人乃天) ⑤예산지방의 동학농민혁명



예산 대흥동헌 전경

오늘날 예산은 예산, 대흥, 덕산이 합쳐져 예산군이 된 곳이다. 예산지방에 동학이 전래된 것은 1880년대 전후였다. 삼포 하포리의 박인호가 예산 오리정에서 주인 참침지와 주모 월화의 권유로 동학에 입도한 것이 1883년인데, 이때 예산에는 동학이 널리 퍼져 있었다.

박인호는 후일 천도교 4대 대도주가 된 인물로 내포지방을 대표하는 덕포대접주가 되었다. 박인호가 동학에 입도하고 포덕하면서 박희인이 동학에 입도하였다. 박희인은 예포대접주가 되었는데, 이후 박인호와 함께 예산은 물론 내포지방을 대표하는 인물로 성장하였다. 이렇듯 박인호, 박희인이 동학에 입도하고 활약하면서 동학은 내포지방 전역으로 전파되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자 내포지방 동학농민군은 내포지방 곳곳에서 기포하였다. 그리고 내포지방 동학농민군의 총본부인 예포대도소를 예산 목소리에 차렸다. 박인호의 덕포는 안교선의 아산포와 더불어 아산관아를 점령하여 무기를 확보하였다.

예산지방 동학농민군은 대흥현감 이장세가 동학농민군을 공격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10월 7일 박희인의 예포가 기포하여 대흥관아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텅 빈 대흥관아에서 확보한 무기와 식량을 총본부인 예포대도소로 옮겨 놓았다. 하지만 훈련되지 않았던 농민군은 방비를 허술히 하여 10월 11일 새벽 홍주목사 이승우가 보낸 500명의 관군에게 기습당하였다. 이 공격으로 동학농민군은 예포대도소를 빼앗기고 뿔뿔이 흩어졌다.

결국 서산 여미벌까지 밀려난 동학농민군은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었다.

여미벌에서 새로운 각오로 대오를 정비한 동학농민군은 당진 승전목 전투에서 일본군을 무찔렀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신례원 관작리로 향하였다.

신례원에 이르는 동안 인근의 농민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동학농민군은 3만 명을 넘었다.

내포지방 동학농민군이 신례원으로 물러간다는 소식을 접한 홍주목

사 이승우는 홍주관군에 유희군까지 더하여 신례원 관작리로 향했다. 하지만 이미 승전목 전투에서 일본군을 물리치고 온 동학농민군의 기세를 꺾을 수는 없었다. 홍주관군은 신례원 관작리 전투에서 중군장 김병돈을 잃고 크게 패하여 홍주성으로 도망쳤다. 관작리전투는 1894년 10월 26일 벌어진 전투로 내포지방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벌어진 최대의 전투였다.

관작리전투에서 승리한 내포지방 동학농민군은 한양으로 진격하기에 앞서 홍주성을 먼저 치기로 하고 홍주성으로 진군하였다. 내포지방 동학농민군은 관작리에서 홍주성으로 향하는 길에 삼포 역리에 주둔하여 하룻밤을 묵었다. 지금도 삼포 역리에는 내포지방 동학농민군이 주둔하면서 먹었다는 우물이 있다. 이렇듯 예산지방에는 동학농민군의 유적이 산재해 있다.

/당진시동학농민혁명승전목기념사업회

가정의 달, 주말 나들이 어디로 갈까?

온 가족이 함께하는 #충남여행

따스한 햇살 아래 만개한 봄꽃을 만끽할 수 있는 화창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충남의 다양한 나들이 명소를 소개한다.

5월 초까지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가득한 축제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충남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보자.

김혜동 khdt226@korea.kr



보령시 패러글라이딩 체험장

보령시 남포면 창동리 205
0507-1460-2389



논산시 KT&G 상상마당

논산시 상월면 한천길 15-20
041-734-6984



당진시 아그로랜드 래신목장

당진시 면천면 면천로 1092-135 태신목장
041-356-3154



예산군 전통예산옹기

예산군 오가면 오촌리 390
041-332-9888



천안시 아라리오 갤러리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041-551-5100



서산시 한지전통체험

서산시 인지면 화수2길135-6
010-6536-4721



홍성군 이응노의 집

홍성군 홍북면 이응노로 61-7
041-630-9232



계룡시 무상사 템플스테이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452-13
042-841-6084



금산군 금산다락원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59
041-750-4413



청양군 칠갑산 자연휴양림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668-103
041-940-2428-9



서천군 한산모시관

서천군 한산면 충절로 1089
041-951-4100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아산시 송악면 외암민속길 9번길 13-2
041-541-0848

5월 3일~6일



공주시 석장리 구석기축제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일원
1899-0088

4월 13일~5월 12일



태안군 세계튤립축제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안로 400
041-675-5533

4월 12일~9월 21일
매주 금·토 18:00~23:00



부여군 백마강 달밤아시장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173번길 12
부여시장 광장
041-837-1882



“농촌의 자원을 활용해 농촌답게 가꿔야”...자립형마을로 나아가는 길

더 행복한 마을

⑩ 태안 길우지마을

마을 중앙 폐목장을 구심처로 안면송과 함께 소득도 살아나

친환경농업·스마트팜 지속

“슬럼프도 저력으로 극복”



길우지마을 대표 체험인 오색 떡만들기 체험에 참여한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마을 등에서 친환경 벼 수확 체험을 한 학생들과 기념촬영 중인 김정근 전 길우지마을 추진위원장(사진 오른쪽)

태안군 안면읍, 안면도 내륙을 향해 쪽 뺨은 77번 국도의 3분의 1지점쯤. 섬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전형적인 농촌 풍경을 간직한 길우지마을이 자리해 있다. 섬 속의 농촌으로 과거부터 전적으로 농사소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 마을에 사람이 찾고, 농촌 자원을 활용한 소득 활동이 번성한 건 지난해까지 마을위원장을 맡았던 김정근 씨 덕분이다. 그는 서울서 학업과 직장생활을 하다 25년 여 전인 지난 1995년 고향을 찾아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기억 속 마을은 안면도 내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이었지만 1970년대 문화재 복원사업으로 안명송이 베어

나가고, 마을에 대기업 두 곳의 목장이 들어서며 환경은 황폐해져 갔다. 김 위원장은 “농촌 마을의 저력은 농촌이 가진 자원으로부터 나온다. 도시 사람들이 농촌을 찾는 이유는 농촌다움 때문인데, 농촌이 가진 걸 부정하고 다 부수고 새로 짓는다면 사람들이 올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그런 그였기에 돌아온 고향의 모습은 아쉽고 안타까움이 강했다.

김 전 위원장은 마을에 내려온 지 15년이 지난 2010년쯤 주변의 권유와 마을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처음 마을사업을 맡아 시작했다. 우선 그가 주목한 건 대기업이 버리고 나간 폐목장터. 목장터가 마을 중앙에 위치

에 있어 이곳을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면 주민들이 모이겠다 싶었다. 이와 함께 악취가 풍기던 마을저수지 청소를 시작하고 환경을 정비했다. 그 당시 성과 중 하나가 전국 최초로 마을 공동재활용센터를 만들어, 폐자재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고 그 판매비용을 마을 기금으로 충당하며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것이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된 마을에선 주민들이 단합력이 강해졌고, 마을사업 2년 만에 충남도 행복마을콘테스트에서 1등을 하면서, 도 대표로 뽑혀 전국대회에 나가 경관분야 동상을 차지하게 됐다. 행복마을 콘테스트 수상 후 마을엔 전국에서 방문객이 몰려들

었고, 연간 2000여 명으로 시작된 손님들은 작년엔 유료 체험객만 6000명이 넘었다. 일반 방문객까지는 셀 수도 없다. 프로그램도 학교로 찾아가는 농촌체험, 마을로 와 즐기는 체험, 6차산업 관광체험 등 다양했다. 손님이 오면 자연히 농산물이 팔렸고, 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도 힘을 얻었다.

김 위원장은 손님맛이와 소득 연계를 위해 농촌체험마을을 본격 구상, 직접 계획을 쓰고 사비를 들여 맹지를 구입해 길을 만들고 포장해 체험마을을 꾸리기 위한 시설을 갖췄다. 마을을 사유화한다는 말이 나올까, 부지를 마을의 명의로 돌려드

그의 말에서 고향과 마을에 대한 순수한 애정과 열정이 느껴졌다.

마을 사업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시도한 것은 친환경농업이었다. 당시 8ha의 땅에 하우스를 지어 시작한 유기농 고추농사는 첫 해 19가구가 연간 16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지금은 약 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 고추로 시작된 친환경농법은 마을의 너른 들을 활용한 친환경 쌀 재배로 이어져, 지금은 태안군과 충남도의 학교급식 및 서울권의 급식에도 납품하면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성공한 상태다.

그가 끝없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건 “마을사업의 최종 목표는 자립형 마을로 나가는 것”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저력이 있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마을이어야 리더가 바뀌고 구성원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할 수 있다. “충남 어디서보다 가장 농촌다운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곳, 안면도의 아름다운 관광자원과 길우지마을의 풍성한 체험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곳, 5월에 더욱 아름다운 마을로 많이 와 주세요~!” 애정이 듬뿍 담긴 김 위원장의 당부다.

/손유진 syj0319@korea.kr

서산, 동아시아 공기총사격대회 유치

8월 서산시종합사격장서 개최

[서산] 서산시가 국제 사격대회인 ‘2019 동아시아 유스 공기총사격대회’ 개최지로 선정됐다.

동아시아 유스 공기총사격대회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3개국이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사격대회로 오는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서산시 종합사격장에서 개최된다.

경기종목은 10m 공기소총 및 공기권총 각 남·여 개인 및 단체전 종목으로 15세에서 18세까지의 50여명이 참가할 계획이다.

이번 국제대회 유치는 금년에 서산시 종합사격장이 신축돼 국제 규격에 걸맞은 최신식 전자표적시스템으로 관리, 운영되고 시설도 선수들의 훈련 및 경기운영에 최적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서산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신축된 종합사격장을 집중 홍보하고, 각종 국내외 사격대회 유치 기반 마련과 사격 꿈나무 발굴을 위한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서산시 종합사격장은 10M 공기총 실내 사격장 30사대, 25M 권총 격벽식 20사대, 50M 라이플 격벽식 12사대 등 총2사대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대한사격연맹으로부터 10m공기총 사대 공인 인증을 받았다.

/서산시 제공



해미읍성 나들이객

충남도가 도내 천주교 종교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해미읍성을 찾은 나들이객들이 여유를 즐기고 있다. 전미혜/충남포커스 jmshshr@hanmail.net



예당호 출렁다리 하루 평균 2만명

6일 개통한 예당호 출렁다리의 흥행이 계속되면서 인근관광지의 음식점 매출이 급상승하고 택시가 성업하는 등 주민들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예산군은 출렁다리 개통 이후 15일 동안 30만 명이 찾는 등 지역경제 효과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군 제공

청양 두릉윤성 백제 부흥군 위령제

사비성 함락되자 부흥운동

나당연합군과 혈투 벌이다 패전

[청양] 백제부흥군의 복국운동정신을 기리는 위령제가 지난 19일 청양군 목면 지곡리 두릉윤성 유적지에서 엄숙하게 봉행됐다. 두릉윤성은 충남도 문화재자료 제156호로 웅진(공주)과 사비(부여)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백제 멸망(660년) 이후 한산의 주류성과 예산 임존성, 유성의 내지성과 함께 백제부흥군의 4대 거점 중 하나였다.

당시 사비성이 함락되자 병관좌평이던 정무 장군은 자신의 부하와 유민들을 이끌고 이곳에서 본격적인 부흥운

동을 시작, 한때는 사비성 부근까지 진격하는 등 위세를 떨쳤다.

하지만, 나당연합군에 비해 군사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38일간 혈투를 벌이다 패배했다.

/청양군 제공



농촌을 치유 문화의 新르네상스로

흥성, 협업농장 도입 활력 모색

아동, 장애인 농업치유 기회 마련

축사개조 이용노 창작 스튜디오

[흥성] 흥성군이 신 농촌 재생 패러다임을 도입해 농촌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흥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농업자원으로 치유, 돌봄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감성생명을 운영한다. 지역 아동센터,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이 대상이다.

감성생명 프로그램은 4개소의 농촌 체험농장에서 대상 특색에 맞는 체험활동을 구성하며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농업연계 체험 및 놀이활동을 통해 돌봄 농업을 유도한다.

또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치유농업활동을 전개한다.

전국 최초로 생산형 치유농업 체험

농장인 행복농장과 함께 꿈이 자라는 뜰, 젊은 협업농장, 생각 실천 창작소, 풀꽃농원 등 다양한 사회적 농업 인프라를 갖출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는 흥성형 마을학교 운영을 위해 4억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마을 학교는 흥성교육지원청, 마을학교 운영 비영리단체, 흥성군이 함께 하는 민관 거버넌스 사업으로 참여 학교 수만 관내 12개 교다.

마을 재생을 추구하는 취지에 맞게 유기농업특구인 흥동면에서는 마을별 특성을 살려 친환경 농업 수업을, 이용노의 집이 있는 흥북읍에서는 전문 작가가 도자기 만들기 수업 등 총 26개 프로그램을 1주에 한 번씩 운영 중이다. 전부 학교 정규 교과과정으로 인정된다.

이 밖에 버려진 한옥과 축사를 개조해 만든 이용노 생가 기념관 창작 스튜디오 본격 운영을 위해 1억2000만 원을 투입한다.

/흥성군 제공



충남도민체전 16일, 서천서 광파르

5월 16~19일 '도민은 하나' '경제 체전으로' 준비 한창 장윤정·마미무·윙크 공연 '푸집'

[서천]충청남도 도민체전이 오는 5월 16일부터 19일 나흘간 서천군에서 펼쳐진다. 서천군 25개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충청남도 도민체전은 '모든 도민이 하나 되는 한마음 체전, 스포츠 축제의 경제도와 발돋움 체전, 220만 도민이 어우러져 행복한 체전, 열정으로 영차영차 기운찬 체전'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행복바람', '흥바람', '행복한 서천'

희망찬 충남', '서천바람' 등 총 4부 행사로 구성된 개회식 행사는 16일 오후 4시30분 서천 비인 출신의 미녀가수 장주비(강유진) 축하공연과 공군특수비행단의 에어쇼, 사전축하공연이 펼쳐지며 분위기를 고조시킬 계획이다. 식전행사로 카운트다운쇼, 군산시립합창단의 공연, 군립예술단 혼과 해군군악대의 주제공연, 가수 박구윤과 서천군민 240명이 참여하는 공연이 진행된다. 이어 오후 6시30분부터 내빈과 선수단 입장, 환영사, 대회사, 선수 선서, 성화 점화가 이어진다. '서천바람'을 주제로 진행되는 식후 행사는 멀티미디어쇼에 이어 가수 장

윤정의 축하공연, 자동차 경품추첨 행사, 우주소녀, 마미무의 축하공연으로 개막 밤을 장식한다. 19일 폐막식에는 윙크, 정해진의 축하공연과 종목별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 종합성적 발표 및 시상, 내년 개최지인 당진시에 대회가 전달된다. 신동순 도민체전기획단장은 "이번 충남도민체전은 서천군에서 처음 개최되는 행사로 성공적인 체전 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지역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지역경제가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천군 제공

만리포해수욕장 조기 개장

6월 1일, 야간개장 첫 도입

[태안]태안군이 해수욕장 조기개장과 야간개장을 도입한다. 군은 만리포 해수욕장을 6월 1일에 조기 개장해 8월 18일까지 79일간 시범 운영되고, 그 외 27개 해수욕장은 7월 6일부터 8월 18일까지 44일간 운영한다.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최근 낮의 폭염을 피해 야간에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 증가로 군은 올해 처음으로 만리포 해수욕장에 야간개장을 도입해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15일 간 오후 10시(개장 오전 10시)까지 개장한다. /태안군 제공



서핑 마니아들을 불러모으고 있는 만리포 해변

또 야간개장에 따른 관광객 안전확보를 위해 만리포 해수욕장 워터스 크린 좌측부터 천리포수목원 방향으로 폭 100미터, 길이 70미터 구역을 야간입욕구간으로 정하고 안전시설물 및 안전인력을 배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다. /태안군 제공

천안은 축구센터 유치 열기 '흠뻑'

포클레인 동원 등 이색응원 릴레이 **[천안]**천안시가 한국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다

양한 응원 릴레이가 화제다. 공사가 한창인 성성지구~변영로 연결공사 현장에서는 포클레인을 활용한 '축구센터 가는 길은 우리가 책임진'

다'라는 현수막을 펼치고 축구공을 하늘로 던지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또 안전모와 경광봉을 들고 사진을 찍거나 '천안 유치 대박'이 적힌 축구공을 크게 제작해 응원전을 선보였다. 축구선수 손흥민과 박지성, 안정환 얼굴이 그려진 가면을 쓰고 '따라 올테면 따라 와봐! 축구 종합센터는 천안이야~'라며 천안종합운동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천안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라는 점, A매치 유치 경험, 천안축구센터 등 축구인프라 풍부하다는 장점을 부각하며 유치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1차 서류 심사에 이어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에 통과한 지자체 8곳에 대해 현장심사에 들어가 5월 중 우선협상 대상자 1~3순위를 선정할 계획이다. /천안시 제공



'찬란한 천년 태안' 복군 축제

4월30일~5월4일 행사 다채 "복군 30년...서해안 중심 도약"

태안군이 복군 3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1914년 서산군과 태안군의 병합 이후 서산군에 편입되었던 75년간의 공백과 서산군에서 다시 '태안군'의 이름을 되찾은 1989년 이후 '태안군'의 이름으로 복군된 지 올해로 30주년이 된다. 태안군은 오는 5월 1일 '군민과 함께, 더 잘사는 태안'으로의 도약을 위한 복군 30주년 기념행사를 열기로 했다. 군은 "복군 30주년을 맞아 태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은 다양한 기념행사 추진으로 환황해권 중심도시의 위상을 정립하고 미래비전 공유로 군민과 함께 더 찬란한 천년 태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고 각 오를 전했다.

4월 30일 전야제로 열리는 'MBC 가요베스트'를 시작으로 태안군 문화예술타운 일원에서 5일간 다채롭게 펼쳐진다. 1일 미래비전 선포와 군민대상 시상식으로 꾸며지는 복군 30주년 기념행사는 건강어울림 한마당, 학생 글짓기·그림그리기, 거리 퍼레이드 등 다양한 본행사가 펼쳐지며, 2일과 3일에는 천년의 태안 정책 세미나, 바다 대청소 운동, 수산자원 조성 치어방류 행사가 열린다. 4일에는 'KBS 전국노래자랑'이 열리며 태안군 복군 30주년을 대내외에 알린다. '통계로 본 복군 30년 전시회'와 '태안의 어제와 오늘 사진 전시회' 등은 행사 기간 내내 펼쳐진다. 앞서 군은 주민 직접 투표로 축제비전 '서해안의 중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신 해양도시 태안'으로 정했다. 김명심/주간태안신문 kasi221@hanmail.net

보령 공군사격장 소음 갈등 실마리

충남도 보령 공군사격장 주변지역 상생협력 민관군 협의회 구성

위원장을 맡았고, 도와 보령시, 도·시의회, 공군, 지역주민, 전문가 등 각각 3명씩 위촉됐다. 보령 공군사격장은 1961년 주한미군이 설치, 1991년부터 공군이 운영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사격 훈련으로 인해 소음과 진동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협의회는 향후 군 사격장 주변지역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공동체 발전 계획 수립과 군 사격장과 지역발전의 조화를 위한 정책 개발과 사업 개발을 도모하고, 국가 차원의 주민 지원 등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벌이게 된다. 양승조 지사는 "군 사격장이 주민에게 많은 어려움을 준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안보를 지키는 보무이기도 했다"며 "민관군 협의회가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동체정책관 041-635-3664

격렬비열도 실시간 영상 띄운다

7월까지 시스템 구축완료 해양생태·기상 독도처럼 전송

구축하기로 했다. 태안군은 17일 KBS와 격렬비열도의 실시간 영상전송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서해의 영해 범위를 결정하고 군사, 해양생태학, 기상 관측상 중요한 '격렬비열도'에 실시간 영상전송 시스

템을 구축해 영토주권 수호 의식 및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 협약에 따르면 군은 실시간 영상전송 시스템 구축 비용 및 행정사항 등을 담당하고, 케이비에스(KBS) 대전총국은 기술 검토 및 설계, 공사 전반에 걸친 감독업무를 지원한다. 군은 올 5~6월에 사업을 착공해 올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태안군 제공

오재길 시인 꽃사랑탑 출간

[공주]공주 출신 오재길(54) 시인이 네 번째 시집 '꽃사랑탑' (사진)을 출간했다. 오 작가는 꽃사랑탑은 아름다운 꽃처럼 사랑의 줄기를 타고 변치 않는 사랑의 탑이라고 했다. 이번 시집에는 사랑시만 담았다. 거리에는 사랑을 찾



는 군상들로 가득하다. 저마다 사랑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사랑으로 아름다워졌으면 한다며 절절히 표현했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시집은 엄

두도 못냈을 것"이라는 시인은 인연을 맺은 연인들이 사랑 찾아 가길 바랐다. 시인은 시 '꽃사랑탑'에서 "미움으로 치달을 적엔 친심이 필요(중략)...마음이 빼돌려질 적엔 직심이 필요했다...이제는 꽃 사랑탑에 기대어(중략) 모두 감싸길 바란다"고 노래했다. /도정신문팀

"딸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

노부모 모시는 큰 딸 김연옥 씨 부모 사는 마을로 이사한 효녀



딸 김연옥 씨(61)와 어머니 김명두 씨(86), 아버지 김동설 씨(86)가 활짝 웃고 있다.

[당진]아버지는 12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딸과 사위가 한 동네로 이사를 와 살고 있다. "자식이 가까이 사는 게 좋지 않겠냐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부모님과 한 동네에 살게 된 건 남편의 마음 덕분이다. 김연옥 씨는 그로부터 부모님과 한동네 사는 '귀한 딸'이 되었다. 김연옥 씨의 하루는 부모님 집에서 시작한다. 매일 아침 8시 반이면 그녀는 곧장 부모님 집으로 가서 아침을 싸드린다. 지난 밤 영망이 된 집을 깨끗이 치운 후 반찬을 만든다. "아버지께서 대소변을 잘 못 가리시니까 집이 영망일 때가 많아요. 어머니도 예전과 달리 지금은 거의 기어서 생활하시니까 국이나 반찬, 집안일 등이 힘 드셔서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꼭 가서 들봐드려야 해요" 몇 해 전만 해도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한 달에 2번씩 목욕가고 놀러가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두 분 다 걸음이 불편해서 멀리 나가지도 못해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아버지는 걷기가 어렵고 항상 통통 부어 있다. 연옥씨는 아버지가 조금씩이라도 걸음을 땀으면 하는 마음에 집에 안전바도 설치했다. 5남매의 맏이로 지난 날 동생들 뒷바라지 때문에 하고 싶었던 공부도 마음껏 못 시켰다고 미안해하는 어머니는 "고생한 착한 딸"이라며 딸의 손을 어루만졌다. 더 걱정거리도 없다는 연옥 씨의 바람은 지금처럼 남편과 어머니, 아버지와 잘 지내며 사는 것뿐이다. 정윤성/당진신문 psychojys@daum.net

여행객 불러 모으는 책방·미술관...음성마을의 부활

충남인

당진 김회영·지은숙 씨

‘오래된 미래’·‘그 미술관’ 운영
사전거포·우체국 매입 리모델링
독서모임, 체험으로 주민과 소통
“역사·문화 어우러진 삶의 공간”

당진 면천읍이 문화예술의 옷을 입고 전에 없던 활기를 띠고 있다. 면천읍은 현존하는 조선시대 읍성과 영랑효공원, 군자정, 골정지 등 문화재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는 문화재 보존지역이다. 개발이 제한되다 보니 1980년대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기도 한데 이름난 관광지지는 아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용하지만 했던 읍성마을이었지만 최근에는 주말마다 마을 곳곳을 둘러보는 관광객들로 기분 좋은 소란스러움이 감돈다. 관광객들이 늘면서 마을에 없던 카페들도 생겼다. 전곡서 앞을 돌아온 관광객들이 향하는 곳은 책방 ‘오래된 미래’와 미술관 ‘그 미술관’이다. 1-2년 차이로 면천읍에 문을 연 이곳은 짧은 시간 안에 면천읍성 명물이 됐다.

‘오래된 미래’는 지은숙(51) 대표가 남편 김용희(54) 씨와 함께 운영하는 동네 책방이다. 사전거포로 쓰이던 낡은 이층집을 사들여 책방으로 개조, 올해 1월에 문을 열었다. 지은숙 60여 년이 넘는 건물은 빈티지한 매력에 곳곳에서 물씬 묻어나온다. 1층은 책방으로, 2층은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카페



①지은숙 대표(사진왼쪽)와 김회영 관장이 그 미술관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②오래된 미래 내부 ③책방 2층은 카페로 꾸몄다.



로 꾸며졌다. 뒷문을 열고 나가면 부부가 거주하는 살림채와 작은 안마당이 나오는데, 안마당은 방문객들을 위해 개방하고 있다.

‘그 미술관’도 쓰임이 다 한 우체국 건물을 되살린 경우다. 지역에서 서양화가이자 성악가로 활동하던 김회영(58) 관장이 지은 지 50여년이 넘는 시멘트 건물을 문화공간으로 되살렸다. 폐쇄돼 있던 안마당은 화단과 주차장으로, 1층은 미술관, 2층은 방문객들을 위한 카페로 꾸몄다.

이들에게 면천읍성마을은 ‘첫사랑’과도 같았다. 방문의 계기와 시기는 서로 달랐지만 읍성마을의 아늑한 분위기와 자연스럽게 옛스러운 풍광에 한없이 매료됐다. 마음에 쏙 든 빈 건

물을 발견하고는,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길게는 10년까지 기다렸다. 이들은 ‘첫사랑에 빠져든 것처럼 잊을 수 없었다’고 면천읍성 마을의 매력에 대해 입을 모아 말했다.

용도는 다르지만 ‘오래된 책방’과 ‘면천읍성 그 미술관’은 여러 가지 닮은 점이 있다. 우선 본래 건물의 모습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리모델링을 최소화했다. 인위적인 새로움보다는 낡았더라도 마을에 녹아드는 자연스러운 풍광, 그 속의 아름다움을 깨지 않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김회영 관장은 강조한다.

“도시에서 온 관광객들이 면천에 대해 ‘시간이 정지된 곳’이라는 표현을 곧잘 해요. 오래전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멋스럽다는 것이죠. 면천읍성은 현재까지도 주민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 흔치 않은 읍성마을이에요. 저희는 면천의 오래됐지만 소박한 모습을 최대한 간직하는 선에서 마을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고 싶었어요.”

이들의 철학은 면천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주요 콘셉트와 꼭 들어맞았다. 면천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무조건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닌, 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 읍성 내 주민 생활공간은 옛 모습은 유지한 채 깨끗이 정비되고, 객사와 같은 문화재는 복원될 예정이다. 또 산책로, 둘레길, 주차장 등이 갖춰져 주민이나 관광객 모두 만족할만한 공간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김회영 관장과 지은숙 대표는 면천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도 일종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보고 있다. 도시재생에 있어 ‘사람’과 ‘삶’이 빠져선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주민들과 함께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마을을 만들고자 이들은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각자의 공간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은숙 대표는 ‘오래된 미래’에서 그림책읽기, 영화상영회, 저자 초청강연, 배달강좌 등을 진행한다. 김회영 관장은 ‘면천읍성 그 미술관’ 앞마당에서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주민들을 위한 무료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미술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주민들을 위한 수목화 강좌도 운영 중이다.

이따금 왜 돈을 써가며 시골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묻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에게 지 대표와 이 관장은 ‘행복’,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라고 망설임 없이 말한다.

이 관장은 “면천이라는 역사적인 공간에서 문화예술로 이웃들과 소통하고 지역 활성화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마을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작은 일이라도 앞장서 돕고 싶다”고 말했다.

지 대표는 “책방이 단순히 책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이야기들이 탄생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외지에 책방이 알려지면서 지금은 정작 면천 주민들보다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경향이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 어르신, 어린이들과도 책으로 소통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혜동 khd1226@korea.kr

“도시 부럽지 않은 문화생활 누려요”

주민자치 일번지

⑥아산 장수마을

작은도서관·영화관 운영

마을요양원 설립 목표



마을 주민들이 함께 전신주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

월량2리 장수마을은 아산시 동북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다. 60여 가구가 살고 있고 주민 대부분이 64세 이상이다. 언제부터인지 마을 입구에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커져갔다.

2014년 마을 입구를 또 다시 가로막으려는 공장 때문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겪은 후 주민들의 사이는 좀 더 끈끈해졌다. 주민들은 장수마을을 ‘사람 사는 마을’로 만들어보자는 데 의견을 모았고, 장수마을을 사람들이 이사 오고 싶어 하는 마을로 만들어보기로 했다.

장수마을을 ‘사람 사는 마을’로 만드는 첫 발걸음은 ‘장수마을 명품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 조직부터 시작했다.

하중중 위원장과 20여명의 추진위원은 자주 만나 마을의 발전을 논의했다. 열심히 토론하고 발로 뛴 결과 여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먼저, 항상 비어있는 마을회관 2층을 도서관으로 개조했다. 취지에 공감

하는 각지의 사람들이 도서 6000여권을 기증했고 마을 노인들의 허락과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2014년 12월 ‘장수마을 꿈꾸는 작은 도서관’을 개관했다. 초대 관장은 마을에 새로 이사 온 이덕주 씨가 맡았다.

‘장수마을 꿈꾸는 작은 도서관’은 월 2회 마을극장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에 평생 영화관에 가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을 파악하고 농한기에 영화를 상영한다.

매년 10월에는 장수마을 음악회도 개최한다. 문화에 소외된 농촌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공연을 선보이며 마을 잔치를 여는 것이다. 어르신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장수마을 음악회는 올해로 5회째를 기다리고 있다. 매년 5월에는 어버이날을 맞아 어버이날 축제도 개최한다.

2015년에는 ‘아산시 경관공모사업’

에 선정돼 마을의 창고를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고 마을 곳곳의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는 사업도 진행했다.

주민들의 마을 만들기 활동 참여가 점점 늘어나면서 2016년에는 행사사업인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선행사업’에 선정됐고 이를 통해 마을에서 매년 공연할 수 있는 음향장비 시스템을 구비했다.

장수마을 주민들은 ‘마을 요양원’을 설립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는다. 마을 요양원은 일본 지바현의 ‘바람의 마을’ 같은 노인휴, 그룹휴 성격을 띤다. 장수마을이 꿈꾸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로 보더라도 의미있는 시도다.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장수마을은 발 빠르게 해결책을 찾아 나가고 있다.

/충남형 동네자치 사례집
/김혜동 khd1226@korea.kr

통증없는 삶

건강칼럼



이인호
홍성의료원
마취통증의학과 과장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통증 감각을 완전히 차단시켜 수술을 가능하게 하고 노인에게 나타나는 만성 통증을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모든 환자들이 고통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한민국은 2019년 현재 65세 이상의 인구가 14%이상을 차지하고 고령 인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통증이다. 생명을 위협하는 심뇌혈관계 질환 외에도 고령 환자에서 각종 퇴행성 관절증, 척추병증, 추간관 장애 등이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다. 연장된 수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환들로 인해 고령화 사회의 버팀목이 될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65세 이상 인구의 생산력 감소 뿐 아니라 노인성 만성질환의 의료비를 증가시켜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고령 인구의 각종 통증을 진단하고 치료하며 관리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관리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 인구의 통증 원인은 너무 다양해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두경부부터 경추, 요추, 사지, 관절 등 인체의 모든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과거에는 통증을 없애기 위해 침습적으로 신경을 파괴하거나 수술적인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영상조영장치를 통한 최소한의 시술로 통증을 감소시키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많은 환자들이 척추디스크 질환, 두통, 오십견, 관절염, 목과 어깨 통증,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본 과에서는 이렇게 압박된 신경을 비침습적인 신경차단술을 통해 풀어주는 치료를 주로 한다.

2060년 경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 41%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고령자의 통증 관리는 개인의 삶의 질 뿐 아니라 국가 생산력에도 연관된 만큼 개인의 관리와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마취통증의학과는 인간의 통증에

의원시론

생명의 보고, 천수만 바다를 살리자



조승만 (홍성)
충남도의원

올해 두 번째 회기인 충남도의회 제 310회 임시회는 5분 발언과 도정질문, 조례 제·개정안 처리, 추경안 심사 등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는 회기다.

이번 임시회에 필자는 서부면에 사는 어민들이 천수만에서 새조개가 많이 잡히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민원을 청취하고 천수만 바다를 살리자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실시하였다.

첫째로 금년에 새조개가 많이 잡히지 않아서 흔치 않다 보니 가격이 비싸 새조개를 맛보러 왔던 손님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어 음식점과 어민들은 울상이라고 한다. 겨울철에만 생산되는 새조개는 허름에 맵도는 맛이 부드럽고 일품이라 계절음식을 좋아하는 전국의 미식가들에게는 인기가 만점인 수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다.

특히 천수만에서 잡히는 새조개의 맛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어느 새조개와도 달라 감칠맛나게 입맛을 돋군다. 천수만 바다의 새조개는 2012년에 1,156톤까지 수확하기도 하였는데 매년 차츰 수확량이 감소하여 2012년 이후부터는 통계치가 잡히지 않고 있으며 금년에는 새조개 가격이 10만원대까지 올랐다고 한다. 이렇게 새조개가 안 잡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본적으로 천수만 생태계 변화와

모래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는데 천수만 서식환경 조사 및 바닷물 수온상승에 따른 실증연구와 새조개 종패 생산 기술연구를 통한 모래 자원량 확대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둘째로, 홍성 죽도는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하기도 했는데 천수만 죽도 주민을 위한 생활기반시설의 조기착공을 촉구하였다. 죽도는 도에서 아름다운 섬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까지 방파제 및 등대설치를 추진할 계획이고 2021년부터 오수처리장 설치를 할 예정이다. 2018년부터 여객선 운항을 시작하면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증가하여 금년 1월 기준 방문객수가 2만 5천명을 넘

어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식당 및 오페수는 증가되는 실정이나 오수처리장 설치는 2021년 이후에 계획되어 있어 천수만 바다 오염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오수처리장 등 기반시설을 계획된 시기보다 앞당겨 2020년까지 조기추진 할 것을 도 집행부에 제시하기도 하였다.

셋째로 천수만의 주요항인 남당항과 공리항의 활성화를 위해 어업 및 경제활동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였다.

남당항과 죽도를 찾는 관광객과 레저 동호인들이 급증함에 따라 여객선이 1월 5회 오가고 있지만 조수 간만의 차이로 운항시간 조절에 한계가 있어 부잔교가 없는 남당항 및 죽도 관광객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인 바 남당항에 부잔교를 설치해 줄 것과 공리항도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을 조기에 설치하여 인근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천수만 공리항을 통해 미국 등에 수출시 하역작업에 불편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어민이 승하선 시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 도모, 원활한 수산물 양식을 위해 물양장을 설치해 줄 것과 산란의 보고인 천수만에 물고기가 산란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인공어초 설치를 촉구하였다. 천수만을 오염시키는 AB지구 담수호에 대한 수질검사를 전문가가 실시하여 깨끗한 천수만 바다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만은 바다 어패류 등이 산란하고 서식하는 보고로서 다른 어느 지역의 어패류보다도 쫄깃하며 부드럽고 맛이 좋기로 정평이 나 있다. 이러한 천수만을 우리는 살려야 한다.

충남형 사회적경제기금 지원방안 마련

김명숙 의원,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는 지난 12일 충남도서고나 다목적실에서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조성하고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명숙(청양) 의원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충청남도의회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도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등 각계각층 관



김명숙 의원

련자 8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우리사회에서 심화되어가고 있는 양극화와 해소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사회 공동 이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책과 도민에게 차별 없는 경제기금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명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충남에는 2018년 기준 9개 업종에 700여 개의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 기업, 단체가 있으며 13개 시·군에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지역경제 저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을 통해 기금이 필요한 도민에게 문턱을 낮추는 기금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지원 시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유병국 의장, 충남경찰청 특강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은 지난 16일 충남지방경찰청 7층 대회의실에서 충남지방경찰청 내 간부급 7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역할과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농민수당제 도입 타당성 토의

방한일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이 최근 소회의실에서 ‘충남형 농민수당제’의 구체적인 정책 도입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민에게 농민수당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농민에게 기본소득 보장이라는 구체적인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방한일 의원(예산1)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충남연구원 박경철 책임연구원, 충청남도 식량원에 과 박지흥 과장이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공주시청 배연근 푸드플랜 활



방한일 의원

동가, 당진시 김희봉 농민회합동조합 개혁위원장,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충남연구원 강마야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방한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농촌의 고령화 및 소득 양극화는 지난 10년간 더욱 심해졌다”며, “농업 및 농촌이 베푸는 여러 공적 가치를 보상하는 차원에서도 농민수당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 농민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와 함께 향후 농민수당제의 방향성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이어갔다.

지자체 경상보조금 개선방안 논의

이공휘 의원, 연구모임 워크숍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연구모임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공휘 의원(천안 4)이 대표를 맡고 있는 충청남도 재정운영과정에서 도의회의 재정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18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충청남도 재정운영 분석 및 투명성 확보수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도위원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본 연구모임에



이공휘 의원

서는 충청남도 재정운영과정에서 도민, 집행부, 도의회가 재정거버넌스를 구축해 재정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충남연구원 최용선 연구원은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수단 현황과 충청남도 재정운영 분석’을, 고양시정연구원 박종혁 부원장은 ‘자치단체간 경상보조금 현황과 개

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주제발표 후 참석자들은 7조원에 육박하는 충청남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도있는 토론 시간을 가졌다.

이공휘 의원은 “충남도 재정운영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본 연구모임을 통해 도민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재정거버넌스를 구축해 집행부의 재정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의회에서 정책제언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낯선 이주노동자들의 오랜 벗

이달의 NGO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임금체불·인권상담 통한

고용주와 갈등 완충역할 톡톡

한글교실·마실축제로 공감

‘아산이주노동자센터’는 이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된 단체다. 지역의 시민단체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센터는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보호관 역할을

해오고 있다.

센터의 주요 활동은 이주 노동자들의 상담과 지원 활동이다. 센터는 약 1,000개 업체에 1만 여명의 이주노동자와 1,800여명의 국제결혼 이주민이 있는 아산에서 각종 노동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57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임금, 퇴직금 미지급 상담이 절반을 차지하고 행정 관련 상담, 일상생활 문제, 사업장 변경, 질병,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안을 다루었다. 센터의 상담활동은 궁극적으로 고용주와 이주노동자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산업안전 등이



센터 소속 이주 노동자들이 농촌 봉사활동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노동자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기업체의 이용 수요도 적지 않아 통역을 비롯한 회사측의 지원 요청도 늘어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문화 복지사업도 꾸준하다. 각국 공동체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평등여름캠프와 설날 및 추석행사는 타국에서 생활하는 노동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가을에는 이주민 인권문화제(마실) 축제를 통해 아시아 음식체험, 아시아 전통춤 공연 등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이주민과 내국인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센터는 한글교실, 농촌봉사활동, 문화체험, 나라별 공동체 사업 등을 통해 복지, 문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여성이주노동자 쉼터 운영사업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거처가 없어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에게 안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주고 있으며, 지난해 이용자 수가 연인원 1,900명을 넘어설 정도로 이용률이 높다.

센터가 최근 중요시하는 사업은 인종차별 철폐 운동이다. 인종차별은

UN이 규정한 범죄행위로서 우리나라도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국가이지만 최근 들어 타종교, 이주민에 대한 혐오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센터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UN 세계이주민의날’을 맞아 기념 행사 및 인종차별 철폐 캠페인을 하고 있다.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은 낯선 이국땅에서 차별에 노출된 채 3D업종의 산업현장에서 땀흘리고 있다”며 “대화와 소통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여러 갈등을 해소하고 산업현장에 상생과 협력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정신문팀



조례안 입법예고

도내 중소기업 수출 지원 확대

충남도의회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사업지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명선 의원(당진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은 수출 진흥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해외통상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김명선 의원

마련해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수출관련 기관·단체 등의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무역의 날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두고 있다.

김명선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수출촉진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미세먼지의 위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미세먼지 관리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예산지원 ▲충청남도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 설치 등이 있다.

또 ▲영업용 차량 등을 제외한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 건설공사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



김명숙 의원

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운행제한 대상차량의 단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명숙 의원은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유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폭 넓힌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김연 위원장(천안7)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청소년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 되었다.



김연 의원

특히,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으로 ▲신체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흡연예방과 절주 관련 사업 ▲월경곤란증 지원 사업 ▲약물 오남용 관련 사업 등을 규정하였다.

김연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청소년 건강증진과 관련된 적절한 교육 및 흡연예방·절주 관련 사업, 월경곤란증 지원 사업 등으로 도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력단절여성 일터 복귀 돕는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 했다.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촉진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도내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다.

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창업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비



김옥수 의원

영리법인·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옥수 의원은 “충남도 차원의 실태조사 실시가 없어 차별화된 특성에 대한 한계가 있었으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번 개정안을 통해 충남도만의 자료축적이 가능해져 이에 따른 관리·활용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여성의 일자리 지원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인 가구 지원 실태조사 시행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김한태 의원(보령1)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 조사를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사업, 응급상황 대처사업, 범죄예방사업 등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김한태 의원

사업을 지원하도록 명시하였다.

김한태 의원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최근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노인, 독신자,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중심으로 한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지원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하였다.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토대 마련

충남도의회가 도내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의 장비 공동활용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제정에 나선다.

본 조례 제정시 도내 연구기관 등은 각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장비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과학기술진흥 및 연구개발 활동을 증진시키게 된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공휘 의원(천안4)은 “도내 중소기업들은 고가의 첨단장비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비 보유 기관은 낮은



이공휘 의원

장비 활용도의 문제점이 있다”며,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연구개발장비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에는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연구개발장비의 유지관리, 운영 협의회 설치·운영 등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주춧돌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에 나선다.

이선영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하는 본 조례는 모든 도민이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고, 자유·평등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교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게 명시되어 도민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충청남도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정책·평가에 관



이선영 의원

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는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선영 의원은 “복잡 다양한 문제가 공존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언급하며,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향후 의정 활동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충남건강가정지원센터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정병기 의원(천안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운영 조례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 했다.

본 조례안안에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자 충청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강가정 관련사업으로는 ▲가정상담 ▲가정교육 ▲가정문화사업 ▲시·군 센터의 사업지



정병기 의원

원·평가 및 정보제공 사업 등이다.

정병기 의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요보호가족뿐 아니라 모든 가족구성원을 위한 서비스제공은 물론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지향해야하며, 건강가정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효과적인 서비스제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장 소통으로 복지수도 충남 이끈다

데이터 기반 복지·보건 정책연구모임

충남도의회가 복지수도 충남 구현을 위해 홍성군의 마을복지 실천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복지정책과 연계하기 위한 세미나를 지난 15일 홍성군 홍동면 밝맑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김연(천안7) 문화복지위원장은 ‘마을복지 실천과 지역복지정책의 연계 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현장 세미나에 참석했다.

현장세미나는 충남도의회 연구모임인 ‘데이터 기반 충남 복지·보건 정책연구모임’과 충남연구원 농촌현장연구회, 마을학회 일소공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홍성군 홍동면에 위치한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과 장곡면에 위치

한 행복농장을 방문해 지역 현황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도의회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연구모임인 ‘데이터 기반 충남 복지·보건 정책연구모임’은 다양한 의견을 모아 충남형 트라우마 센터 건립의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관련 정책들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김연 의원은 “앞으로도 충남의 복지 문제에 관해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형태로 현장과 소통하며 지역복지정책에 연계하고, 특히 정신질환, 자살예방, 트라우마 센터 건립을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해 갈 것”이라며, “오늘처럼 현장 기반의 다양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학생 권리, 헌법에 따라 구체화해야”

학교인권 연구모임 세미나

충청남도 학교인권문화 연구모임(대표 김영수(서산2) 의원)은 지난 13일 천안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 회의실에서 세미나를 열고 청소년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번 세미나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서울, 광주, 경기, 전북 등 4개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제도화 및 운영 사례에 대해 현직 교사의 발표 청취후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조례안의 구체적인 규정들이 초·중·고등교육법령 등 관계기관의 규정과 일치하고, 헌법에 따



김영수 의원

라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각하되거나 기각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열린 토론을 펼쳤다.

김영수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며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하고 있어 앞으로 지역에서 학생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학교의 인권문화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학교인권문화연구모임은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세먼지 없는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어린이집·초중고교 공기청정기 보급
노후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추진
수소차 2040년까지 49만 대 보급

2019년 4월25일 ~ 5월4일 제841호

충남도정



대한민국 충청남도정 발행인 문화체육부지사 편집인 공보관 창간 1990년 12월 15일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발행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전화 (041)635-2035 <https://blog.naver.com/chungnamdojung>

“국토 균형발전 위해 수도권 규제 유지해야”

도의회, 서울대 주최 토론회 참가
공장 총량제 완화 중단 촉구

충남도의회 의원 9명이 지난 12일 서울 엘리시안 강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주최로 개최된 본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전국 광역·기초의회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의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펼쳤다.

토론회에 참석한 비수도권 의원들은 “정부와 정치권은 지방경제 활성화 및 기업의 지방투자 유인을 위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수도권 규제가 필요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도의회 홍재표 부의장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기도 용인시 입지 선정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알리



충남도의회 홍재표 부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9명이 지난 12일 서울대학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여,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 집중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수도권 규제는 계속 유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대응할 것”이라

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2019년 1월 31일 개최된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재표 부의장이 대표발의 하고 이종화, 김득응, 오인철, 이선영,

한영신, 김명선, 김기서, 김영권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수도권공장 총량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지방의회 기능·역할 배워요”

찾아가는 청소년의회 교실

당진 조금초·보령 천북중 참여

충남도의회는 지난 11일 당진 조금초등학교를 찾아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 41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조금초 학생들은 ‘깨끗한 교실을 위하여’,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2분 발언을 실시하면서, 학교시설 이용과 문화재에 대한 정책제안을 쏟아 내놓았다.

또한, ‘초등학생 교복 착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교복착용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열린 찬·반 토론을 통해 조례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이어 도의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장에서 보령에 소재한 천북중학교 학생

자치회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천북중학교 학생들은 도의회와 같은 방식으로 의장 선거를 비롯해 2분 발언 및 조례안 안건 처리 체험을 진행했다.

청소년의회교실 참가 학생들은 ‘학교안에서 전동휠 타지 않기’, ‘다른학년 출입금지’라는 주제로 2분 자유발

언을 진행했다. 또 조례안 발의 시간에는 “기존 급식 순서를 고학년에서 저학년으로의 변경” 내용이 담긴 ‘급식순서 변경에 관한 조례안’ 발의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표결의 시간을 가졌다.

도의회 관계자는 “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지방의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자유로운 토론 문화로 정책결정 방법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살림살이 현미경 심사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돌입

5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

충청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지난 12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갖고, 오는 5월 1일까지 20일간 충청남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결산검사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계속비 및 명시·사고 이월비 결산, 재산·기금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한 서류검사, 현지확인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적법성, 사업집행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게 된다.

결산검사위원 구성으로는 지난 3월

29일 제310회 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여운영·김동일·방한일 의원 3명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회계 분야 전문가 3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여운영 의원은 “결산검사위원들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통해 통과례로서의 결산검사가 아닌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예산낭비 요인 등을 면밀히 검사하고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예산에서 정한대로 집행되었는지와 정책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해 도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결산검사가 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결산검사가 마무리되면 도와 교육청은 결산검사위원들의 감사의 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한다.

제1기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 공개모집

충청남도의회에서는 각계각층 도민의 다양하고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제1기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를 공개모집합니다. 도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모집기간 - 2019. 4. 9. ~ 4. 30. (21일간)
- 활동기간 - 2019. 5월 위촉일로부터 2년
- 모집인원 : 60명
- 자격 선정기준
 -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18세 이상 충남도민!
 - 현장 모니터링 활동에 자질이 없는자
 - 지역별, 연령별, 전문 분야별 등을 안배하여 선정
- 모집방법 :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 의정모니터 인센티브
 - 의정시책 자료 제공, 우수 모니터링 실비보상 등
- 문의
 - 충청남도의회 총무담당관실(041-635-5060) 문의 바랍니다.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함께 만들어 가요

충청남도의회